

# KIMA+plus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August. 2014 | Vol. 02



## CHANCE TO CHANGE

### SPECIAL INTERVIEW

문철호 조직위원장

### KIMA Special

KIMA 해양관광시대를 열다

The Bay 101

해양관광의 꽃 '크루즈'로 부산을 만나십시오

### Hot Issue

보트쇼, 이젠 부산입니다 | 국제보트산업전

### + Culture

船遊 옛 그림 속에 만나는 한국의 뱃놀이

# KIMA2014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 WEEK

주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주관  BEXCO

후원  대한요트협회  KSPOT  한국관광공사  BPAV  부산항만공사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BC

특별후원  Mercedes-Benz  (주)광등블루  (주)삼도

[www.kimaweek.org](http://www.kimaweek.org)



# 29 < 71

대한민국의 미래  
지구(地球)가 아니라 해구(海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71%를 차지하는 곳 -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곳 -  
산소의 75%를 만들고 이산화탄소의 50%를 흡수하는 곳 -  
태양열의 80%를 흡수해 온도를 유지해 주는 열저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地球)가 아닌 해구(海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과 수입의 99.7%도 바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행복, 더 큰 미래 -  
해양수산부가 바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KIMA2014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대한민국 해양레저중심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부산국제보트산업전

2014. 10. 2(목) ▶ 10. 5(일)  
BEXCO | 수영만 요트경기장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사무국

TEL : 051-740-8600

FAX : 051-740-7640

E-mail : boat@bexco.co.kr

www.boatshowbusan.com



# KIMA+ plus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Vol. 02 | August. 2014

|        |                      |
|--------|----------------------|
| 발행처    |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조직위원회  |
| 발행인    | 문철호                  |
| 편집인    | 여한웅                  |
| 기획·편집  | 안효영                  |
| 디자인·제작 | 하늘기획 051.611.3970    |
| 발행일    | 2014. 08.            |
| add.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
| tel.   | 051.760.1130         |
| web.   | www.kimaweek.org     |

KIMA+ plus는 글로벌 해양레저문화축제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의 홍보용 매거진입니다.

KIMA+ plus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생펄프가 50% 이상 함유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인쇄, 제작하였습니다.



## 30 KIMA+ Culture

船遊 옛 그림 속에서 만난 한국의 뱃놀이  
「허주부군 산수유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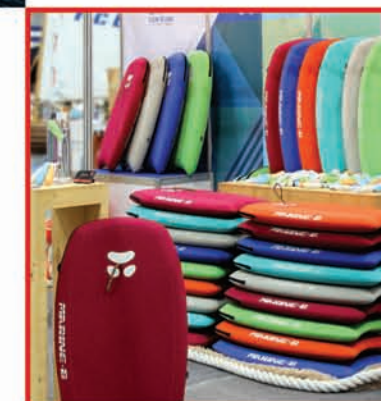
## 33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취득 AtoZ “도전! 조종면허”

## 36 KIMA Hot Issue

보트쇼, 이젠 부산입니다 | 국제보트산업전  
KIMA INTERVIEW “부산보트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BEXCO | 오성근 대표이사 사장

## 44 KIMA+ Design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해양레저를 꿈꿉니다  
T·O R&D Labs, 티오알앤디랩스 | 김태호 대표



## 48 KIMA+ Industry

우남마린  
(주)오션 스페이스  
카약왕 PASKO  
(주)블루마린요트

## 52 KIMA BRIEF

## 04 Chance to Change...

Challenge the New Marine!

## 06 KIMA WEEK 2014

SPECIAL INTERVIEW | 문철호 조직위원장  
KIMA WEEK 2014 | 행사개요  
KIMA WEEK 국제컨퍼런스

## 14 KIMA Special 01

KIMA 해양관광시대를 열다  
Hot Place The Bay 101  
Hot People 해양관광의 꽃 '크루즈'로 부산을 만나십시오  
웅호만유람선사업자 (주)삼주 | 백승웅 대표  
News Clipping 해양레저 기반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모색

## 22 KIMA Special 02

KIMA가 만난 세계의 보트쇼  
런던 두바이 상해 싱가포르  
Coming up BOATSHOW





# CHANCE TO CHANGE...

## Challenge the New Marine!

변화를 꿈꾸는 자들에게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는 이런 말을 전한다.  
“변화의 기회는 평온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태풍 같은 위기에 찾아온다.  
그래서 기회는 도전을 통해 실현된다.”

바다의 두 얼굴을 마주한 2014년의 대한민국...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의 기회'가 아닌가

우리 앞에 새로운 해양시대가 열리고 있다.



SPECIAL INTERVIEW

문철호

KIMA WEEK 2014  
조직위원장

Moon Chulho

**Q** 부산에 오시자마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행사의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평소 해양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들이 궁금합니다.

**A** 문철호2014 대한민국해양레저네트워크 조직위원장 | 부산문화방송(주) 대표이사 사장  
책임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만, 부산과의 인연과 함께 허락된 특별한 기쁨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환경이 제게 아주 익숙하진 않지만, 오랜 기자생활을 거치며 해양도시들을 접할 기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이 홍콩인데, 십 수 년 전임에도 홍콩은 이미 다양한 해양레저가 보편대중화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의 다양한 풍경과 활동들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해양을 향유한다는 것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사회 전반에 굉장한 활력을 주고, 그것이 그 도시와 국가의 파워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해양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양'이 품은 가치와 에너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부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해양레저축제'를 지향하는 KIMA WEEK가 대한민국 해양레저 활성화와 해양레저산업의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훌륭한 전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Q** 작년에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가 많았던 까닭인지 올해 기대 또한 큼니다. 첫해의 성과와 올해 준비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A** 2013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가 뜨거운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막식부터 내외 귀빈과 많은 해양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고, 전 세계 6개국에서 6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창조경제 기반의 글로벌 해양레저 비즈니스 성공사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국제수퍼요트컨퍼런스는 호주수퍼요트협회의 Barry Neville Jenkins 회장을 비롯한 해양 관련 국내외 저명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수퍼요트시장의 전망과 함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해양레저 대회를 KIMA WEEK라는 브랜드로 묶어 진행하고, 각종 해양레저 무료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이 해양레저와 더불어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고, 부산국제영화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획된 행사들은 영화제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KIMA WEEK 2014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5일(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해운대, 광안리, 수영강 일대와 BEXCO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전국 해양레저산업 관련기관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행사기획과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KIMA WEEK 2014가 올해의 주요행사로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을 기획했습니다. 10월 2일(목)부터 총 4일간 해운대 BEXCO 제1전시장과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약 100개사가 참가하는 800개 부스 규모의 전시회로 대형요트와 중소형 보트, 요트엔진, 마리나시설, 해양레저 장비 등의 전시가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국내외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올해는 아무래도 '부산국제보트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보트쇼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한 바 있어, 어쩌면 후발주자인 셈인데요.

국제적인 보트산업전시회를 펼치는데 있어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경쟁력 내지는 차별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A** 무엇보다 부산이 가지는 경쟁력은 '바다'라는 천혜의 환경이겠지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유수의 보트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보트쇼는 해양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은 해안선이 적은 기존의 국내 보트쇼 개최도시들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면 당연히 해양수도인 부산입니다.

두 번째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현장들을 둘러보면, 단순히 정보와 비즈니스만을 위한 기획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Watch, Catch, Touch라는 말도 있듯이, 감성으로 어필하여 방문객들과 교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부산은 해양레저산업의 생산지와 소비지로서의 강점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제일의 MICE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과 영화영상 등의 부가적인 매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 전시기간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과 맞물려 있고, KIMA WEEK가 부산국제영화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풍성한 매력들을 준비 중입니다.

“ ‘해양’이 품은 가치와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부산’ ”



**Q** 'KIMA WEEK'는 해양을 중심으로 문화와 산업의 융합 베이스에서 디자인된 행사라 기획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효성 있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어떤 노력(혹은 환경)이 필요할까요?

**A** '융합'이라는 단어 자체에 내포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 '융합'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성들이 벽을 넘어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창의적인 도전'이 융합이 지향하는 방향성이라 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서로의 가치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객관적인 이해와 인정이 베이스가 되어야하겠지요.

생산자들이 문화를 이해할 때, 제품은 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매력적인 제품은 시장에 윤기를 더하고, 비즈니스는 즐거워집니다.

거꾸로, 문화 종사자들이 산업을 이해할 때, 수요층이 늘어나고 문화가치의 확산속도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속가능해지고 윤택해지며, 파워풀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들이 시도되어야 진정한 융합의 산물들이 빛을 보게 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겠죠.

**Q** 'KIMA WEEK' 역시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전국적인 산학연관의 에너지를 네트워킹하고 있는 좋은 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에 주력하고 계신지요?

**A** 현대사회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두 말도 필요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네트워크라 하면, 중국인들이 말하는 '관시(關係)'란 말이 떠오릅니다.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조직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나아가 조직과 조직의 관계에서 건강한 네트워킹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가지는 힘 또한 '관계'의 힘입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참여하시는 모든 회원들이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를 유지해오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군요.

현재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정책, 인프라, 창의적인 기획,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Q** '세월호'라는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 해양에 대한 정서는 범국민적으로 침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KIMA WEEK 2014'를 통해 해양을 향한 국민들의 정서를 '다시 희망'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KIMA WEEK 2014'에 거는 기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산업이든, 문화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려면 '사용자'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KIMA WEEK가 해양레저와 해양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해양레저를 즐기는 시민들, 해양을 일터로 혹은 삶 터로 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행정적 환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범국민적 슬픔이 가져다 준 너무나 큰 교훈이 있다면, '관리'의 중요성이라 생각합니다.

삼면이 바다라는 천혜의 해양환경을 가진 대한민국이 해양을 국가경쟁력으로 삼기 위해 선결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도 지혜를 모으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KIMA WEEK 2014'는 올해도 해양을 중심으로 한 레저스포츠, 산업, 문화가 보다 조화로운 융합을 이루어내며 해양 기반의 국내산업 활성화와 함께 해양문화 바로 세우기 그리고, 해양을 통해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함으로써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마다 부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IMA**



# KIMA2014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 WEEK

##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 Overview 개요

|           |                                |           |                            |
|-----------|--------------------------------|-----------|----------------------------|
| <b>주제</b> |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br>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 축제 | <b>장소</b> | 부산 해운대, 광안리, 수영강 일대, BEXCO |
| <b>기간</b> | 2014년 9월 29일(월) ~ 10월 5일(일)    | <b>주최</b>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
|           |                                | <b>주관</b> |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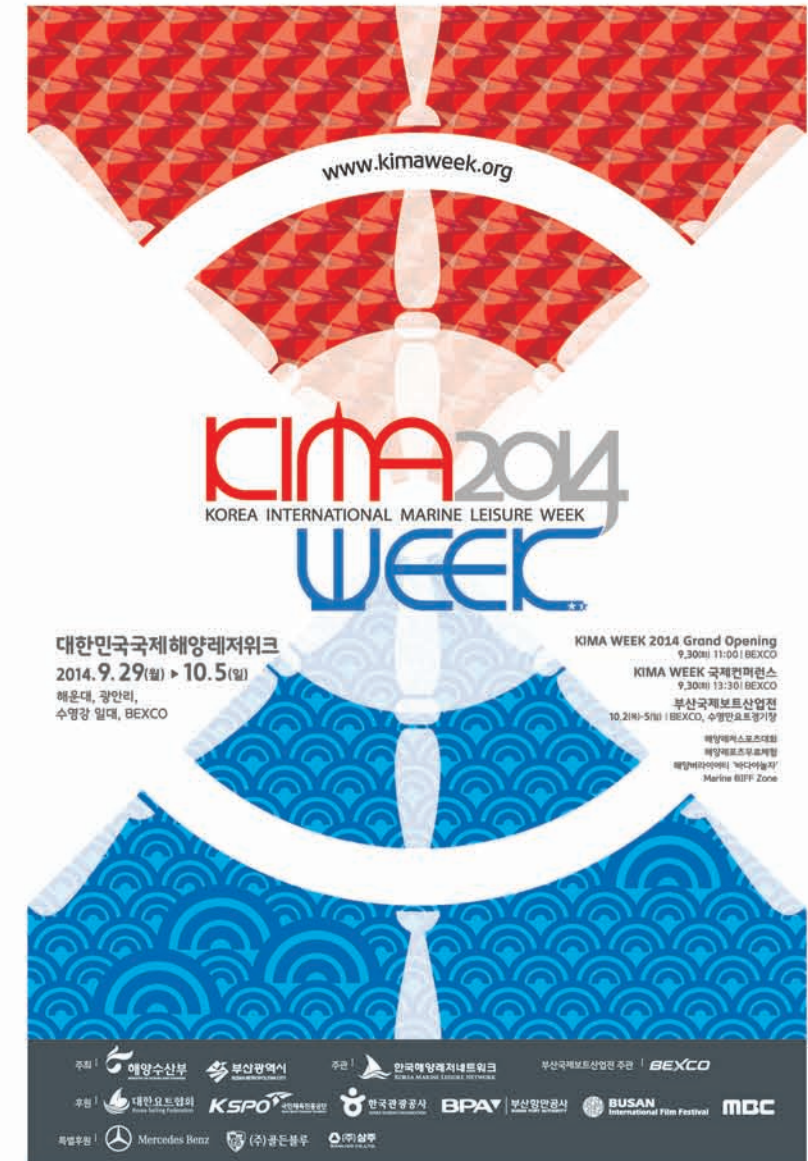
### Program 프로그램

|  |  |
|--|--|
| <b>Grand Opening</b>                     | 9월 30일(화) 11:00<br>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
| <b>KIMA WEEK 국제컨퍼런스</b>                  | 9월 30일(화) 13:30~16:00<br>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
| <b>부산국제보트산업전</b>                         | 10월 2일(목) ~ 5일(일)<br>BEXCO 제1전시장 및 수영만요트경기장  |
| <b>해양레저스포츠대회</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회 광안리달빛수영대회<br/>10월 4일(토) 18:00~22:00   광안리해수욕장 일원</li> <li>제2회 어린이 요트대회<br/>10월 4일(토) ~ 5일(일)   해운대해수욕장 일원</li> <li>제4회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br/>10월 6일(월) ~ 12일(일)   수영강 APEC나루공원</li> </ul> |
| <b>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b>                      | 9월 29일(월) ~ 10월 5일(일)<br>광안리해수욕장 일원, 수영만요트경기장  |
| <b>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b>                      | 부산MBC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바다야 놀자!'<br>방송 : 7월 19일(토) 09:40 ~ 10월 4일(토) 09:40<br>광안리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진해해수욕장 등  |
| <b>부산국제영화제 연계행사<br/>Marine BIFF Zone</b> | 10월 2일(목) ~ 11일(토)<br>The Bay 101 marina(해운대)  |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사무국 Tel. 051-740-8600 | Fax. 051-740-7640 www.boatshowbusan.com  
KIMA WEEK 사무국 Tel. 051-760-1143 | Fax. 051-760-1134 www.kimaweek.org

### Visual Identity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2014



### KIMA WEEK가 대한민국 해양레저의 발전을 위한 Key Station이 되겠습니다.

**About Poster** | 포스터의 디자인모티프는 키마 컬러(KIMA Red & KIMA Blue)와 배의 키(rudder) 이미지다. 상하로 배치한 Red & Blue의 컬러 조합은 KIMA WEEK의 아이덴티티 컬러로 태극을 연상케 함으로 대한민국 해양레저 축제의 대표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배의 키(rudder)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대각선 면 분할은 해양레저축제로서 KIMA WEEK의 다이내믹함과 속도감 있는 비전 실현, 균형감 있게 발전하는 해양강국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또한, 요트와 파도 이미지의 패턴을 디테일로 적용하여 축제로서의 풍성함과 화려함을 표현했다.

KIMA WEEK는 '전 세계가 함께 하는 글로벌 해양레저축제'를 지향하는 만큼,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에는 '한국다움'의 흔적과 함께 KIMA WEEK의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사회적 책임감을 담아내고자 했다. **KIMA**



2014년 대한민국해양레저위크의 서막을 알리는 KIMA WEEK 그랜드오프닝과 더불어 KIMA WEEK 국제컨퍼런스가 9월 30일 벅스코 컨벤션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글로벌 수퍼요트 전망을 다룰 기조연설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한·중·일·러 해양정책 협력방안 및 CIQ프로세스'를 주제로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는 KIMA WEEK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및 과제에 대한 한층 심화된 주제를 다루며 더욱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중·일·러 4개국의 해양정책 및 협력에 관한 교류의 장이자 토론의 장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동북아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 해, 첫 컨퍼런스에서는 호주수퍼요트협회(SYA) Barry Jenkins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이신형 교수, 뉴질랜드 Backwell-White Yacht Design의 수석디자이너 Brett Bakewell White 대표, 덴마크 X-Yacht Christian Due Hammershoej 이사, 해양수산부 김양수 해양산업정책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주제발표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Barry Jenkins 회장은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해양산업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이 해양레저산업의 선두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며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제컨퍼런스와 함께 열릴 KIMA WEEK 2014 개막식에는 기조연설 및 축하를 위해 국내외 주요인사를 비롯하여 해양레저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는 부산MBC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 KIMA WEEK 국제컨퍼런스

‘한·중·일·러 해양정책 협력방안 및 CIQ프로세스’ 주제로 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 KIMA WEEK 2014 Grand opening + KIMA WEEK International Conference

- 일정 | 2014. 09. 30 (화)
- 장소 |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 초청대상 | 국내외 요트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500여 명
- 공식언어 |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 그랜드 오프닝 Grand Opening / MBC 전국 생중계 |                     | 국제 컨퍼런스 Int'l Conference / MBC 녹화방송 |  |
|------------------------------------|---------------------|-------------------------------------|--|
| am 11:00                           | 개막식 : 개회사, 축사, 비전영상 | pm 13:30                            | Policy Roundtable 정책 라운드테이블<br>주제 > 한·중·일·러 해양정책 협력방안 및 CIQ 프로세스 |
| 11:30                              | Keynote Speech 기조연설 |                                     |  |





# KIMA, 해양관광시대를 열다

세계 각국의 해양관광여건을 분석해보면, 흔히 해양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집중하는 산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해양관광의 꽃'이라 불리는 크루즈관광산업, '마리나'를 축으로 하는 해양레저스포츠산업, 그리고 '해수욕장'을 무대로 하는 관광상품으로 압축된다.

국내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을 비롯한 임해도시들은 한결같이 '해수욕장'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있고, 마이오트시대를 대비한 마리나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국제크루즈 및 연안 크루즈 활성화 정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본격적인 해양관광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기분 좋게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 부산 최초 상업적 해양레저기지로 문을 연 'The Bay 101' 그리고 용호만 유람선으로 연안크루즈의 업그레이드를 선포한 '쥬삼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해양관광시대를 열다 Hot Place +

# The Bay 101

해마다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연간 1,200건 이상의 행사와 전시회가 열리는 곳, 바로 부산 해양관광의 대표거점인 해운대다. 최근 해운대에는 '더 베이(The Bay) 101'이라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문을 열면서 이전에 없던 역동을 일으키고 있다.

동백섬 어귀에 자리잡은 '더 베이(The Bay) 101'은 부산권 최초의 상업적 해양레저기지로서 민간자본 350억 원이 투입되어 완성된 퍼블릭 마린아(public marina)다.

동백섬 해양레저기지사업은 맨 처음 동백섬마리나가 건축허가를 받아 2010년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가 경영부실 등으로 2011년 5월에 중단됐던 사업으로, 이후 향토기업인 (주)키친 보리에가 사업권을 넘겨받았고, 2013년 초부터 공사를 재개해 올해 5월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상태다.

외식사업을 하는 (주)키친 보리에가 해양레저시설인 마린아를 인수하게 된 동기에 대해 박지만 대표는 "이 입지야 말로 해운대와 부산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관광인프라가 있어야 할 곳이라 판단했고, 관광선진국인 싱가포르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었다"며, 누구나 한번쯤 찾고 싶도록 즐길 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최고의 해양레저 콘텐츠를 갖춘 마린아 시설로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The Bay 101'은 크게 클럽 101과 갤러리 101 그리고 외식공간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클럽 101은 50여 척의 요트·보트·제트스키 등을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함께 세미나와 컨퍼런스, 문화행사 등을 열 수 있는 연회시설 그리고 식당 등을 갖춘 클럽하우스다.

'The Bay 101'은 최고의 마린아 조성을 위해 시설, 장비, 전문인력 면에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국내 해양레포츠 전문회사를 조사하던 중, (주)블루마린요트를 해양레포츠운영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했다.

클럽 101은 국내 최대 규모로 128명이 동시 승선 가능한 76피트 카타마란 요트와 360도 회전이 가능한 최고시속 100km의 초고속 제트보트, 30여 명이 함께 동백섬 앞바다의 맑은 바닷속을 즐길 수 있는 반 잠수정 등 그동안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해양레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한사람만을 위한 요트가 아닌 누구나 고품격 요팅을 즐길 수 있는 퍼플릭마리나라는 점이 해양레저 저변을 넓혀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he Bay 101'을 둘러보면, 편안하면서도 유니크한 인테리어와 군데군데 스며있는 문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건축과정에서도 디자인과 콘텐츠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썼다는데, 갤러리 101이 상징적 공간이라 볼 수 있다.

갤러리 101은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비롯하여



3,567㎡ 부지 위에 연면적 7,682㎡의 클럽하우스와 12,000여㎡에 달하는 공유수면 위에 요트, 보트, 제트스키 등 50여 척이 동시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 계류시설이 완비하고 있다.

전 세계의 트렌디한 제품들을 부산에서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복합전시문화공간이다. 단순 쇼룸에서 벗어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갤러리 101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즌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도 기획 중이다.

'The Bay 101'은 외식공간들을 직영하는 것도 특징이다. 외식사업체를 모기업으로 한 만큼 책임있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주)키친 보리에의 박지만 대표가 오너셰프로 '열정의 부엌'이라는 요리연구소까지 운영하며 한식을 기본으로 한 전 세계 요리를 연구하고 레시피를 개발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지역향토기업임을 강조하며 본사도 부산으로 옮겨온 (주)키친 보리에에는 'The Bay 101'의 개장과 함께 100여 명의 정규직 사원을 채용했다. 세수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해양을 기반으로 해양레포츠와 문화, 디자인, 라이프스타일까지 연계하여 해양레저의 영역을 확장한 'The Bay 101'이 해운대와 동백섬을 해양관광의 핫플레이스로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해양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IMA+



해양관광시대를 열다 Hot People +

## 해양관광의 꽃 '크루즈'로 부산을 만나십시오

용호만 유람선사업자 (주)삼주  
백승용 대표

지난 해 11월, 부산광역시시는 용호만에 띄울 고  
급유람선 운항사업자로 (주)트리콜S&S(대표 백  
승용)을 최종 선정했다. 대리운전으로 잘 알려  
진 트리콜S&S는 최근 건설과 리조트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며 해양관광사업에 대해서  
도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가진 기업이다.  
유람선 사업자 선정 이후 6개월여 시간이 흘  
렀다. 바다를 둘러싼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도  
일었던 만큼, 용호만 유람선 운항에 대한 안부  
가 궁금하던 참이었는데, '수퍼요트' 도입에 대  
한 새로운 소식까지 들려왔다. 그동안 회사명  
도 (주)삼주로 바꾼 백승용 대표, 그가 근래에 만  
나는 '해양관광'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세계  
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대리운전으로 알려진 트리콜S&S가 용호만 유람선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이제 사명도 바꾸시고 본격적인 해양관광 사업에 뛰어드셨는데,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A. 지극히 일상적인 계기였습니다. 주변에 요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있어 함께 세일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으니까 관심  
을 가지기 시작했고, 좀 더 경험해보고 싶는데, 요트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이 즐기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에 대한 사  
업성을 따져보게 되더군요. 요트를 소유하지 않고도 세일링을 즐길 수 있  
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해양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용호만 부두를 이기대와 연계한 해  
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획한 유람선 운항사업에 마땅한 사  
업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람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사람들이 정말 타고 싶어 하는 배를 사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건설, 리조트, 조선사업까지 확  
대되다 보니 그룹사명이 필요해 올해 5월에 트리콜 S&S에서 '주식회사  
삼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Q. 이상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신 것 같은데, 실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  
니까?**

A.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처음 용호만 유람선 운항사업을 위  
해 조사를 하던 중, 프랑스에서 마음에 드는 요트를 찾았습니다. 80~90  
명이 탈 수 있는 카타마란 요트였는데, 실제로 괜찮은지 알아보려고 같은  
모델의 배를 구입한 다른 나라들을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스페인과 크로아티아에서 운항 중인 배는 계절이 안 맞아서 탈 수 없었고,  
쿠바에서 운항 중인 배를 타보았는데, 정말 좋은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한  
국에 선금을 신청했는데, 선금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연적인 환경의 차이도 이유였지만,  
주로 일본 배들만 접해왔던 선급기관들이 익숙지 않은 유럽 배에 대해서  
는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배는 선급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프랑스 칸에서 72피트 유람선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고, 그  
런 배를 부산 용호만에 띄우면 멋진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배면 누구라도



타고 싶어하겠다는 확신이 섰지만, 역시나 그 배를 한국에 들여오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더군요.  
요, 물리적인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닌 데다 운임까지 35억 원 이상 든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 배의 설계도면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  
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조선강국 대한민국에 우리 배를 만들어 주겠  
다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직접 만들기로 하고, 지금 세 척의 배를 건조 중입니다.

**Q. '안되면 되게 하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추진력이군요. 그런데, 선급도 수월하고, 비용도 적  
게 드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조선소까지 세워가며 그 배를 고집하신 이유는 뭡니까?**

A.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배를 타게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요트는 아직까지는 생활문화이기보다 로망에 가깝  
습니다. 요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부산시민이든, 관광객이든 요트를 타면서 느  
끼고 싶은 '로망'을 만족시키려면, 중고 배를 고쳐 쓰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저희는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잘 압니다. 저희 회사의 모체인 트리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고  
객들이 이용하시는데, 수많은 고객들의 요구에 항상 귀를 기울이다보니 다양한 계층의 니즈  
(needs)와 소비성향을 자연히 알게 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뭔지도 알고 있습니  
다. 더욱이 지난 봄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반드시 새 배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Q. 용호만 유람선 빨리 보고 싶네요. 언제쯤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낼까요?**

A. 용호만 유람선은 10월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100인승 급의 고급유람선 3척이 건조  
에 들어간 상태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운항코스 개발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부산 사람뿐 아니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 부산의 바다를 로맨틱한 추억으로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Q. 일반적으로 GNP 3만불 이상이면 요트사업을 비롯한 해양관련 사업이 잘 될 거라고들 하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A. 실제로 사업에 뛰어들어보니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허가 관련 법령문제들이 재정비되어야겠고, 요트를 제조하고 검사하는 시장도 너무 작은 상태입니다. 또한, 큰 배 만드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해양레저산업을 키울 수 있는 요트 주변 인프라도 너무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마리나항을 만든다는 계획도 잡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생깁니다.

수요층 역시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실제로 요트를 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요트에 대한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저변 확대는 물론, 요트산업이 말처럼 쉽게 발전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범국가적으로 해양강국을 외치고는 있지만, 진짜 해양산업을 키우고 활성화하려면 시간과 공부, 투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조 중인 용호만 유람선 3척 외에 새로 들어오는 요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트인지 소개해 주세요.**

A. 8월 즈음에 'X-yacht'사의 44pt짜리 요트가 한 대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 새 요트가 들어온 예가 잘 없는데다, 덴마크에서 제조한 요트라 관심이 높습니다.

사실 국내 요트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오는 중고 요트들이라, 'X-yacht'요트의 도입이 이례적이긴 하죠. 아메리칸 컵스에서 우승한 경력도 있는 터라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제품입니다.

그래도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일본에 가서 엑스요트 에이전시를 만나고, 에이전시의 권유로 덴마크에 가서 엑스요트사를 방문해 직접 공장도 보고 왔는데, 오랜 세월 쌓여온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요트라 그런지 제조기술이나 디자인까지도 참 품위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작년 키마위크 기간 중에 엑스요트 재무이사가 한국을 방문해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만나면서 결정했습니다. 'X-yacht'요트는 영업을 하기보다는 요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요트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내는 매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Q. 세계의 해양레저시설들, 즉 마리나들을 많이 돌아보셨을텐데, 국내에, 특히 부산에 벤치마킹하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A. 세계의 요트시장을 조사하다 보니, 생각보다 좋은 마리나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는 그야말로 걸음마 수준이죠. 요트 선진국들에서 가장 가져오고 싶은 부분은 생활 속에 문화로 녹아있는 요트입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하는 일상의 공간, 문화로서의 요트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손수 요트를 닦기도 하고, 옆에서 바비큐도 즐기는 일상의 장면들이 참 부럽더군요. 이를 위해 키마위크가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있다면, 시민들이 해양레저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변이 확대되고, 마니아도 생깁니다. 더 깊이 있는 연구해서 요트를 잘 만드게 되고, 산업도 왕성해질 겁니다. 지금으로써는 갈 길이 먼 것 같긴 합니다.

**Q. 해양레저문화를 만들어가는 분으로서 시민들에게 요트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A.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반해, 여름에 물가를 조심하라는 정서가 더 깊습니다.

이런 정서의 벽이 그 무엇보다 높은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국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마다 가치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편견에 의한 오해는 벗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에 따라 인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한때는 귀족놀이였던 골프지만, 스크린골프의 등장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조석을 막론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가 된 것처럼, 요트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트를 소유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요트를 타면서 느끼는 감흥에 가치를 두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열어갈 테니, 시민들은 생각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KIMA+**



## 해양레저 기반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모색

###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신설 분과 '해양관광위원회' 출범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대표이사장 문철호)는 7월 16일, '더베이101' 마린홀에서 해양관광위원회 하례회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 문철호 이사장은 한국관광공사의 정용문 동남권협력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해양레저를 이용한 부산만의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지난 2012년에 산, 학, 연, 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양레저 대중화와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그동안 기획정책, 시설, 산업, 교육을 포함한 다섯 개 분과로 나뉘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왔으며, 올해 여섯 번째 분과인 '해양관광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 이날 해양관광위원회에서는 항공사, 호텔, 여행, 백화점, 뷰티,

마리나 등 해양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기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원들은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기존의 부산 해양관광 인프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해양레저 활용 프로모션 등 해양관광 활성화의 다양한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를 제안했고, 해양레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상호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자는데 뜻을 같이 하며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해양레저 기반시설을 건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장기적인 안목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면 해양관광 분야의 산업은 속도감 있는 저변확대를 기대하는 만큼 관광컨벤션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된다.

####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해양관광위원회

|     |                    |     |                      |
|-----|--------------------|-----|----------------------|
| 김성한 | (주)부산롯데호텔 총지배인     | 박효순 | 한국크루즈 관광협의회 회장       |
| 김현태 | (주)라뷰티코아 대표이사      | 이경학 | (주)진일월드마린(남천마리나) 대표  |
| 노상덕 | (주)신세계조선호텔 부산 총지배인 | 정용문 | 한국관광공사 동남권협력지사 지사장   |
| 박봉주 | 한화리조트 총지배인         | 조영미 | (주)경동소재(스타제이드몰) 대표이사 |
| 박수근 | (주)엘시티PFV 대표이사     | 한태근 | 에어부산(주) 대표이사         |
| 박지만 | (주)키친보리에 대표이사      | 홍승기 | 아이파크마리나(주) 대표이사 사장   |
| 박창영 | 롯데부산연세점 대표이사       |     |                      |

〈이름 가나다순〉



# KIMA가 만난 세계의 BOAT SHOW

1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대의 마리나 산업은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다.  
최근 아시아 시장의 등장으로 해마다 40%씩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마리나산업은 30조 6천억 원의 시장규모를 자랑한다.  
이러한 세계 마리나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 마리나산업의 꽃이 바로 '보트쇼 BOATSHOW'다.  
2014년을 맞으며 KIMA WEEK는 진일보한 행사를 위해 부산에서 '국제보트쇼'를 개최하기로 했다.  
준비를 위해 세계 유명보트쇼에 대한 케이스스터디는 필수였다. 런던, 동경, 상해는 KIMA WEEK 사무국 실무자들이 직접,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경우는 KIMA WEEK의 미디어콘텐츠 중 하나인 다큐멘터리 제작팀을 통해 현장의 이모저모를 경험할 수 있었다.  
KIMA가 만난 세계 각국의 보트쇼들을 소개한다.



# London Boat Show 2014



2014 런던보트쇼  
4-12. January  
영국 런던 엑셀전시센터(ExCeL Exhibition Centre)

세계 4대 보트쇼를 꼽자면, 영국(런던), 독일(뉘른베르크), 프랑스(파리), 미국(마이애미)을 꼽는다. 이 가운데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유럽을 대표하는 런던보트쇼를 찾았다.

런던보트쇼는 매년 1월, 런던의 비즈니스와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인 엑셀전시센터(ExCeL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되는데, 올해는 1월 4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영국해양연맹과 영국보트산업무역협회의 자회사인 내셔널보트쇼(National Boat Shows)에 의해 주관되는 런던보트쇼는 32,500㎡나 되는 엑셀의 넓은 홀에서 전 세계에서 참여한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보트와 보트관련 장비 및 의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품들이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고 있어 세계요트시장의 핫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올해는 400개 업체가 참여한 약 9만여 명이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계적인 요트브랜드를 한눈에 보고, 마음에 드는 요트를 직접 경험해본 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 보트쇼가 가지는 매력이라면, 런던보트쇼에서는 각종 대회 수상작 보트와 요트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매이벤트도 실시되고 있어 바이어들에게는 이만큼 만족스러운 비즈니스의 장이 없을 것이다.

런던보트쇼의 주요 장점 중 하나라면,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전시장 외부로 바로 이어지는 야외전시장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다. 로열 빅토리아 도크에서는 키가 높아 실내로 들어올 수 없는 슈퍼요트들이 주로 디스플레이 되는데, 수상전시를 위한 보트쇼 전용 선착장과 보트레이스를 호스팅할 수 있다는 특별한 매력 덕분에 사전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도 어려울 정도로 찾는 이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해군선박(구축함이나 호위함)에서도 쇼를 호스팅하는 등 콘텐츠의 스케일과 풍성함 또한 쇼의 명성에 힘을 더한다.

런던보트쇼는 산업박람회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관광명소로서도 이미 기여하는 바가 커 보인다.



# Dubai International Boat Show 2014



2014 두바이국제보트쇼  
4-8. March  
MINA SEYAHI 두바이 인터내셔널 마린클럽

중동의 뉴욕이라 불릴 만큼 화려한 두바이에서는 매년 3월, 아시아 3대 보트쇼 중 하나인 두바이국제보트쇼가 펼쳐진다.

지형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관문인 두바이는 요트 수송이 편리하고, 국제시장으로의 링크가 쉽다는 것이 지리적 장점을 발판 삼아 불과 20년 만에 아시아 제일의 보트쇼로 자리를 굳혔다.

두바이 마리나산업의 급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바이보트쇼는 국왕이 직접 찾아올 만큼 정부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두바이 정부가 석유자원이 고갈될 때를 대비해서 관광자원을 발전시키고자 했고, 이를 위해 조성한 인공섬과 마리나, 워터프론트 하우스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촉매제로서 보트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22년 째를 맞고 있는 올해 두바이보트쇼에는 50여 개 나라에서 750여 업체가 참가했고, 30,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요트와 보트를 사고 파는 바이어들은 물론 정비와 수리업체, 해양레저용품회사까지 마리나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딜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리나산업의 트렌드를 연구하기도 한다. 전시장 밖에도 430여 척의 크고 작은 보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로 선체길이 30m 이상의 메가요트와 바다 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60m 이상의 슈퍼요트들이 위용을 과시한다.

무엇보다 두바이보트쇼는 밤에 더 활기를 띤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보트쇼 전시장도 늦은 오후부터 밤 9시까지 개장하는데, 관람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 China International Boat Show 2014



2014 상해국제보트쇼  
10-13. April  
중국 상하이 월드엑스포센터

KIMA WEEK가 2014년 행사로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을 확정하고,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4월, 상하이 월드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상해국제보트쇼를 방문했다.

550여 업체가 참가하고, 34,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 이번 전시회는 작년에 비해 참가신청 건수가 두 배로 늘었을 만큼 해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해국제보트쇼의 전시장 규모는 런던보다 더 큰 50,000㎡에 이른다. 주요 전시품목은 세일링 보트와 FRP보트를 포함한 보트류와 슈퍼요트, 메가 요트, 크루즈요트 등 럭셔리요트가 주를 이룬다. 그 외에도 요·보트의 구성요소 및 관련기술, 수상스포츠 장비와 교육프로그램, 마리나와 레저서비스 등의 섹션으로 나뉘어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상해국제보트쇼의 가장 핵심적인 매력은 약 50대의 요트모델이 아시아 최초로 소개되는 데뷔무대라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요·보트 시장이 상해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해국제보트쇼 역시 요·보트 전시 외에 On-the Water 체험시설, Asian Marine & Boating Awards, Try-A-Boat day, Marine Photography competition, 포럼, 컨퍼런스 등 30가지 이상의 해양레저 관련 행사를 다채롭게 선보였다. 보트쇼가 단순한 비즈니스의 장을 넘어 관광, 문화 등의 새로운 시장을 파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Singapore Yacht Show 2014



2014 싱가포르국제요트쇼  
5-8. March  
MARINA CLUB, SENTOSA COVE

자원이 절박했던 싱가포르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일찌감치 마리나시장에 눈을 돌렸고, 불과 4-5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한 싱가포르의 마리나 산업이 지금 싱가포르의 경제는 물론, 아시아 마리나시장을 이끌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싱가포르 마리나산업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싱가포르국제요트쇼다.

싱가포르국제요트쇼는 전시장이 있는 센토사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를 찾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무조건 발도장을 찍고 갈 정도로 유명한 관광명소인 센토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인 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리조트월드 센토사가 개장하면서 그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고 한다. 아시아 최고의 테마파크로 떠오른 리조트월드 센토사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비롯하여 각종 해양스포츠, 바다를 육지로 옮겨놓은 듯한 대형 아쿠아리움, 싱가포르에서 유일한 워터파크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 중심에 싱가포르 최고의 'one 15 마리나'가 있다. 요트쇼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2011년에 처음 시작한 싱가포르 요트쇼는 개최 4년 만에 아시아 대표 보트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내무부 장관이 찾아올 만큼 정부의 관심도 이곳에 쏠려있다. 올해도 126개 업체가 참가, 14,000여 명이 참관했다. 해마다 4월에 열리는 싱가포르요트쇼는 규모보다 다양한 이벤트에 강점을 보인다. 그래서인지 축제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띈다. 19세기 영국과 중국을 오가며 중개무역 상인들의 발이 되었던 범선출항을 시연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쉽게 보기 어려운 수퍼카들도 전시장 곳곳에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밤이 되면, 요트쇼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진다. 싱가포르 최고의 마리나인 one15 마리나 전체가 거대한 파티장으로 변하는데, 어찌 보면 싱가포르 요트쇼의 진짜 비즈니스는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중국 부호들의 요트들이 거의 다 싱가포르로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마리나 파생산업들을 굉장히 키워냈기 때문이다. 호텔산업, 요트클럽 활성화, 마리나 주변의 아파트나 리조트 산업들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리나 자체의 산업보다는 마리나를 통한 부동산 연계 산업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싱가포르 요트쇼가 상징하는 바이다.





# Coming up BOATSHOW

## 런던 국제보트쇼(LONDON BOAT SHOW 2015)

2015년 01월 09일(금) ~ 01월 18일(일)

런던 - ExCeL London

www.londonboatshow.com

도시의 중심부의 위치한 EXCEL LONDON의 자리상 이점과, 각종 수상작 보트, 요트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매이벤트도 실시 될 예정 / 01월 10일 ~ 12일 크루즈쇼 동시개최

- 엔지니어 및 측량, 침구 및 매트리스, 보트 수리 및 변환, 운송, 보트 야드 장비, 선체 의장, 잡화상 일반, 크루즈, 전자 및 전기 장비, 엔진 장비 및 액세서리 엔진 및 기어, 가구 및 바닥재, 발전기, 컨디셔닝 마루나, 보안시스템, 안전 장비, 트레일러, 보트 접착제, 실런트 및 페인트 등



## 영국 사우샘프턴 보트쇼

(Southampton Boat Show 2014)

2014년 09월 12일(금) ~ 09월 21일(일)

영국 Mayflower Park/Town Quay

www.southamptonboatshow.com

- 카누 및 카약, 갑판장비, 함재정, 전자제품, 발동기, 어업, 국내수로, 수상 스포츠, 윈드서핑 등

## 스톡홀름 국제보트박람회

(Stockholm International Boat Show 2015)

2015년 02월 28일(토) ~ 03월 08일(일)

스웨덴 Stockholm International Fairs

www.alltforsjon.se

- 보트 및 보트 관련 장비류



## 함부르크 SMM 조선기자재 및 해양기술 박람회

2014년 09월 09일(화) ~ 09월 12일(금)

독일 Hamburg Messe

smm-hamburg.com

- 구동장치, 컨설팅, 관련서비스, 전기공학, 전자기술, 항공, 항구기술, 정보시스템, 화물선적시스템,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기술, 해운업체, 조선, 선박, 해상 운송, 선박장비, 선박기계, 센서, 감시시설, 환경기술, 방산기술, 조업 등



## 함부르크 국제보트박람회(hanseboot 2014)

2014년 10월 25일(토) ~ 11월 02일(일)

독일 Hamburg Fairground

hanseboot.de/en

- 보트용 액세서리, 대여용 보트, 모터보트, 세일보트, 서핑장비, 잠수용품, 보트건조, 다이빙 장비, 수상스포츠용품, 각종 장비, 서비스, 보험산업 등



## 뒤셀도르프 국제보트박람회(BOOT Düsseldorf 2015)

2015년 01월 17일(토) ~ 01월 25일(일)

독일 Messe Düsseldorf

www.boat-duesseldorf.com

세계최대 규모의 보트 전문 무역 전시회

- 낚시용품, 의류, 보트, 보트 트레일러, 대형 & 중형 & 소형 보트, 보트건조, 잠수장비, 보트대여, 보트용 액세서리, 윈드서핑, 수상스키, 수상스포츠용 아이템, 의류, 구명장비, 엔진, 각종 시설, 다이빙 장비 등



## 암스테르담 보트쇼(HISWA 2014)

2014년 09월 02일(화) ~ 09월 07일(일)

네덜란드 NDSM-shipyard

www.hiswater.nl

- 보트, 요트, 선박 관련 종류 각종 아이템 등



## 암스테르담 해양설비 박람회(METS 2014)

2014년 11월 18일(화) ~ 11월 20일(목)

www.metstrade.com

- 보트, 트레일러 및 차량, 조리, 냉각, 난방 및 공조, 갑판 장비 및 하드웨어, 전자, 전기, 컴퓨터, 엔진, 드라이브, 부품 및 컨트롤 인터리어 & 가구, 마루나 설계, 건설 및 장비계류 및 앵커 장비, 항해, 페인트, 접착제 및 유지 보수, 안전, 보안, 돛, 돛대, 위성, 서비스, 소프트 용품, 의류, 의복 등



## 마이애미 국제보트박람회(Miami International Boat Show & Strictly Sail 2015)

2015년 02월 12일(목) ~ 02월 16일(일)

MIAMI BEACH CONVENTION CENTER & SEA ISLE MARINA & YACHTING CENTER

www.miamiboatshow.com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 센터, 마루나 섬, 베이 사이드 3군데에서 개최되며, 전일권 입장권 구매 시 무료 셔틀버스 및 수상택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

- 보트, 엔진, 수상용품, 구명용품, 보트용 액세서리 등



## 파리 보트쇼(AUTIC 2014)

2014년 12월 05일(금) ~ 12월 14일(일)

프랑스 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

www.salonnaviqueparis.com

약 700여개 보트 및 모터보트 포함, 200개의 신모델 전시예정

- 보트, 크루즈, 카누, 카약, 요트, 아케이드, 서핑, 스포츠, 제트, 마루나, 모형 배, 모터 보트, 엔진 제조기, 낚시기구 및 페인트, 니스, 다이빙, 포트 서비스, 트레일러, 캐터링, 의류, 항해 기술, 항해 로프트, 세일링 보트 등



## 칸느 국제보트박람회

(Cannes Intl Boat & Yacht Show 2014)

2014년 09월 09일(화) ~ 09월 14일(일)

프랑스 Vieux Port & Port Pierre Canto

www.salonnaviquecannes.com

세계적으로 유명한 boatyards에 의해 전시 된 다양한 요트를 볼 수 있으며 프랑스 리비에라의 중심에 있는 주요 명품 브랜드의 쇼 케이스 및 다양한 이벤트와 불거리를 제공

- 보트 및 보트 액세서리 등



2014. 10. 2(목) ~ 10. 5(일)

BEXCO 제1전시장 | 수영만 요트경기장

www.boatshowbusan.com

(관련기사 p36)

## 두바이 국제보트쇼

(DUBAI INTERNATIONAL BOAT SHOW 2015)

2015년 03월 03일(화) ~ 03월 07일(토)

두바이 DUBAI INTERNATIONAL MARINE CLUB, MINA SEYAH

www.boatshowdubai.com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두바이에서, 세계 각국의 무역 방문자 및 구매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보트 제조 산업에 대한 지역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보트 빌더에 효과적인 방안을 두바이 국제 보트 쇼에서 제공하는 것이 두바이 국제 보트쇼의 목적 - 보트, 보트 유지 및 보수, 디젤 엔진, 요트, 크루즈, 보안, 선박용 혁신 시스템 등



## 일본 국제보트쇼

(JAPAN INTERNATIONAL BOAT SHOW 2015)

2015년 03월 05일(목) ~ 03월 08일(일)

일본 Pacifico Yokohama

www.marine-jbia.or.jp

- 모터보트, 소형보트, 고무보트, 보트용 엔진, 레저의류, 도서, 인테리어, 리조트, 수상스포츠, 아웃도어 등

## 싱가포르 국제요트쇼

(SINGAPORE YACHT SHOW 2015)

2015년 03월 05일(목) ~ 03월 08일(일)

싱가포르 MARINA CLUB, SENTOSA COVE

www.singaporeyachtshow.com

- 각종 요트 및 기술, 요트용 액세서리 등



## 상해 보트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Boat Show 2015)

2015년 04월 09일(목) ~ 04월 12일(일)

상해 Shanghai World Expo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www.boatshowchina.com





boating in old pictures  
옛 그림 속에서 만난  
한.국.의. 뱃.놀.이

인생을 일컬어 망망대해의 일엽편주(一葉片舟)라 비유한다.  
세파에 시달리는 한 척의 배와 같은 인생에 대한 겸허한 깨달음일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옛 산수화들 속에 등장하는 일엽편주의 정서는 힘겨워 보이기보다는 '누릴 줄 아는 여유'가 묻어난다.

船遊선유.  
옛 사람들은 뱃놀이를 이렇게 불렀다.  
조선시대만 보아도 다양한 '선유(船遊)'의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다.  
KIMA plus는 '옛 그림 속에서 만난 한국의 뱃놀이'의 이야기를 연재하며  
21세기 대한민국 해양레저가 품은 저력과 가능성들을 생각해보려 한다.

글 안효영

boating in old pictures

## 허주부군 산수유첩 虛舟府君 山水遺帖

조선시대의 뱃놀이는 주로 양반들의 풍류였다. 선유(船遊) 혹은 주유(舟遊)라 일컫는 사대부의 뱃놀이는 시와 그림, 가무가 어우러진 시원한 물놀이이자, 강과 바다, 산과 호수 등 자연이 그려둔 화폭을 감상하는 유람이기도 했다.

18세기 중반, 조선에서 뱃놀이를 둘째라면 서러워할 선비가 있으니, 단연 안동의 이종악(李宗岳, 1726~1773)을 꼽는다. 고성 이 씨인 그의 집안은 안동 일대에서도 명가(名家)였으나, 이종악은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시와 서화를 즐겼던 강호처사였다.

특히, 전용 범선을 가졌던 그는 풍경이 아름다운 계절을 만나면 어김없이 배를 타고 낙동강을 유람했다고 한다. 허주(虛舟)라는 자호(自號)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의 배에 항상 실려 있었다는 거문고, 책, 다기 등에서도 그의 선상풍류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사실 허주는 선유의 조건을 타고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가 살았다는 임청각은 강가에 위치해 배를 띄우기 쉬웠고, 낙동강변에는 선대의 누정이 있어 정박과 유숙에도 그만이었을 것이다.



東湖解纜(동호해람)



羊汀過帆(양정과범)



仙寺尋眞(선사심진)





鮮魚返照(선어반조)

## 18세기 한국형 크루즈컨벤션의 흔적

1763년 4월 4일, 이남도 허주는 친족들과 함께 낙동강 일대를 유람하기 위해 뱃놀이 나선다. 소매 가득 불어오는 강바람과 온 산을 뒤덮은 신록은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남의 뱃놀이는 어느 때와는 조금 달랐다. 닻새간의 넉넉한 일정에 화구(畫具)도 챙겼다. 친구와 친지들에게는 미리 경유지를 알려주며 어느 날, 어디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해두었다. 허주가 택한 경로는 낙동강의 지류인 반변천을 따라 굽이굽이 펼쳐지는 12경승지였다. 이른 아침 임청각 앞 동호에서 배를 띄운 허주가 양정(羊汀), 칠탄(七灘), 사빈서원(泗濱書院), 선창(船倉), 낙연(落淵), 선찰(仙刹)과 선유정(仙遊亭), 몽선각(夢仙閣), 백운정(白雲亭)과 내앞마을(川前里), 이호(伊湖), 선어대(鮮魚帶)를 거쳐 귀착지인 반구정(伴鵝亭)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예정대로 꼬박 닻새가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날 뱃놀이에는 빼어난 자연경관 뿐 아니라, 거문고 연주와 다도를 곁들이며 친지들과 시회도 열렸다. 명승지에 잠시 내릴 때는 그곳의 지인들과 만남과 이별의 정(情)을 나누기도 했다. 허주는 바로 그것을 《허주부군산수유첩(虛舟府君山水遺帖)》이라는 화첩에 고스란히 담아놓았다. 자연을 관조하고, 예악을 향유하며, 물화(物華)를 공유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허주 이종악. 그의 그림 속에서 우리 시대가 만들어가야 할 해양레저 콘텐츠의 미래를 엿볼 순 없을는지. **DMZ**

## 참고문헌

조선후기 船遊풍조와 虛舟 李宗岳의 〈虛舟府君山水遺帖〉 | 권해은 저. 고인쇄문화 제16집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우리 놀이의 문화사) | 유승훈 저 | 월간미술  
『虛舟府君山水遺帖』 圖版



아이들이 자리면서 부모에게 귀가 달도록 듣는 말이 있다.

‘물가에 가지마라’

삼면이 바다인 자연환경과는 썩 어울리지 않는 정서다. 하지만, 바다를 정복과 향유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다를 제대로 배우고, 안전을 훈련하는 것이 아닐까.

해양레저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면 다름 아닌 ‘조종면허’다.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 책임운영자인 전용성 씨는 “해양레포츠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해마다 24회 정도의 시험기회가 있으니, 틈을 내어 2~3일 정도만 투자한다면, 바다를 훨씬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며 조종면허를 적극 권한다. 바다를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즐기기 위한 준비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취득과정을 소개한다.

• 자료제공 |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취득 A to Z

“도전!  
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관련 상담 & 문의  
부산조종면허시험장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239번길 18  
(수영만아파트파크아파트 옆 소공원 뒤편)  
051-742-0367 | <http://cafe.daum.net/bswhwhdd>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는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제트스키, 낚시보트 등)를 가지고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면허다. 2000년 처음 제도가 생긴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1년을 기점으로 면허취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시험은 관할구역 해양경찰서의 감독 하에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에서 치러지는데, 부산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면허 취득과정은 자동차 면허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일반조종면허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조종할 수 있는 레저기구에는 차이가 없다. 대신 1급을 취득하면 자기가 감독하면서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조종을 시킬 수 있으며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

❶ **원서접수**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다. 부산에서는 부산조종면허시험장(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내)과 부산요트조종면허시험장(영도구 태종대 한국해양대학교 내)에서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증명사진 그리고 수수료(필기시험 4,000원, 실기시험 54,000원)가 필요하다.**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별도의 준비사항이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❷ **필기시험**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3층 강의실에서 해양경찰관의 감독하에 필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필기시험은 법규, 해양상식, 기관 등에 대해 50문제가 출제된다. 1급 응시자는 70점 이상, 2급 응시자는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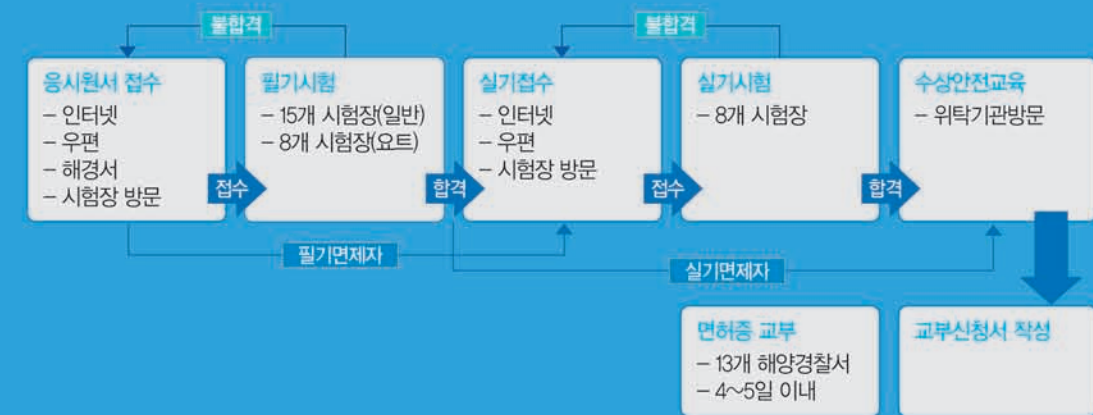
| 구 분        | 필기시험(50문항)                 | 실기시험(실기코스)                |
|------------|----------------------------|---------------------------|
| 시험과목 및 시험선 | 수상레저안전 / 운항 및 운용 / 기관 / 법규 | 150마력/FRP선                |
| 시험준비       | 필기교재                       | 실기시험장에서 실기코스 연습 가능        |
| 합격점수       | 1급 : 70점 이상 / 2급 : 60점 이상  | 1급 : 80점 이상 / 2급 : 60점 이상 |

❸ **실기연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그 장소에서 바로 실기시험을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연습해서 실기시험에 합격하기는 힘든 만큼 전문 강사로부터 연수를 받는 게 좋다.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연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연수신청을 하면 합격할 때까지 재교육을 시켜준다. 실기연수는 실기시험장인 수영강 하류에서 실제 실기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 사양의 모터보트로 6~9번 정도 진행된다.

❹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일정규격을 갖춘 시험선으로 수영강 하류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보트에 타기 전 배터리 연료 계기판 점검부터 시동을 켜고 시험관이 지시하는 방위각에 따라 나침반을 보면서 보트를 운항하는 시험이다. 침로변경, 증속 등 운항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을 테스트 받게 된다. 실기시험은 2급인 경우는 60점 이상을 받으면 되지만 1급은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사행에서 최대 54점까지 감점될 수 있으므로 1급 응시자들에게는 사행 통과 여부가 합격의 관건이다. 사행을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급정차, 가상 익수자 구조, 계류장 접안 등의 평가가 남아 있다.

❺ **안전교육 후 취득** 실기시험까지 합격하고 나면 3시간의 안전교육 이수과정이 필수다. 안전교육까지 무사히 마치고 서류를 갖춰 부산해양경찰서에 접수하면 2~3일 이내로 조종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다이나미**

## 조종면허시험 취득절차



## 전국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현황

| 구 분           | 연락처                 |                   | 실기시험장                         |
|---------------|---------------------|-------------------|-------------------------------|
| 서울 조종면허 시험장   | T. 02) 304-5900     | F. 0505) 304-1162 |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256 / 한강공원내 난지지구 |
| 서울 요트면허 시험장   | T. 02) 304-5900     | F. 0505) 304-1162 |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256 / 한강공원내 난지지구 |
| 경기 조종면허 시험장   | T. 031) 584-5700    | F. 031) 584-9734  |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62 / 청평호      |
| 강원 조종면허 시험장   | T. 033) 252-9097    | F. 033) 242-9098  | 강원도 춘천시 고상배터길                 |
| 강원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 T. 033) 576-0611    |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 덕산항             |
| 충남 조종면허 시험장   | T. 041) 541-9423~4  | F. 041) 541-9425  | 충남 아산시 신정호길 15-14 / 신정호       |
| 충북 조종면허 시험장   | T. 043) 856-3119    | F. 043) 851-4311  |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436번지 / 충주호    |
| 전북 조종면허 시험장   | T. 063) 548-7774    | F. 063) 548-7776  |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능제저수지             |
| 전남서부 조종면허 시험장 | T. 061) 537-0741    | F. 061) 537-0742  | 전남 해남군 금호호                    |
| 전남동부 조종면허 시험장 | T. 061) 683-6458    | F. 061) 664-7052  | 여수시 해양소년단 훈련장                 |
| 전남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 T. 061) 247-0331~2  | F. 061) 247-0333  |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앞해역      |
| 경북 조종면허 시험장   | T. 054) 732-8884    | F. 054) 734-1021  |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영로 33 / 오십천       |
| 경북 제2조종면허 시험장 | T. 054) 821-2020    | F. 054) 823-1215  | 경북 안동시 석주로 514                |
| 경북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 T. 054) 733-8884    |                   |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개길 22           |
| 경남 조종면허 시험장   | T. 055) 271-9977    | F. 055) 271-0041  | 창원시 광암해수욕장                    |
| 서부경남 조종면허 시험장 | T. 055) 933-1973    | F. 055) 933-1974  | 경남 합천군 봉산면 서부로 4270-8         |
| 울산 조종면허 시험장   | T. 052) 298-6025    | F. 052) 298-9137  | 울산시 남구 여천동 부도로 288            |
| 부산 조종면허 시험장   | T. 051) 742-0367    | F. 051) 747-6279  | 부산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239길 18         |
| 부산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 T. 051) 410-5005    | F. 051) 405-2080  | 부산시 동심동 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
| 통영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 T. 055) 641-5051    |                   | 통영시 통영항 도남관광단지 내              |
| 고성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 T. 055) 672-9822    | F. 055) 672-7884  | 고성군 화하면 당항리 당항포관광지            |
| 제주 조종면허 시험장   | T. 064) 743-6232    | F. 064) 743-6231  | 제주시 도리로 15-20                 |
| 제주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 T. 064) 743-7536, 7 | F. 064) 743-7538  | 제주시 도두서항길 34                  |

• 자료제공 |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



# BUSAN INTERNATIONAL BOATSHOW

## 2014부산국제보트산업전

2014.10.2 (목)~5 (일) BEXCO, 수영만요트경기장



## 보트쇼, 이젠 부산입니다!



###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자세한 내용은 전화와 홈페이지로 문의

• Tel. 051-740-8600

• Fax. 051-740-7640

• 이메일 boat@bexco.co.kr

• 홈페이지 www.boatshowbusan.com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이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대한  
민국 해양레저산업증심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의 주요 해양레저산업 업체 및 관련 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가하고, 미래 해  
양레저산업을 주도할 첨단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는 해양레저산업 전문  
전시회로 벡스코 제1전시장 및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120개사 참가  
800개 부스 규모로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부산보트산업전은 7회째를 맞는 경기국제보트쇼  
와 비교하면 늦은 감이 있으나, 육상·해양전시장이 인접해 있고, 2016년  
재개발 완공 예정인 수영만요트경기장과 신규조성 예정인 북항마리나와  
같은 최적의 해양레저 여건을 갖춘 조선·해양산업의 집적지 부산에서 개  
최되어 빠른 속도로 경쟁력 있는 전시회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관기관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대표이사장 문철호)와 벡스코  
(대표이사 오성근)는 지난 5월 12일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  
업전 공동주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보트 및 요트, 엔진부품, 마리나 시설, 해양레저장  
비 등 요트·보트 관련 수요 측면의 해양레저 분야와 공급 측면의 조선기  
자재 산업 분야가 조화를 이루며 해양레저문화 저변 확대와 지역 조선기  
자재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부대 프  
로그램으로 최고 보트 시상(Best Boat Award), 국내외 바이어 초청 비  
즈니스 상담회 등 참가기업의 마케팅 활동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프로  
그램을 운영,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IMA+





## 광동FRP산업 GWANGDONG FRP

주소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번길 42  
연락처 | 051-831-2267 홈페이지 | www.grp.co.kr

광동FRP산업은 FRP선박, 요트 제조사업에서 다수의 연구개발 성공실적과 각종 특수선박 개발 등 꾸준한 노력으로 고객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건조기술을 기반으로 55ft, 52ft, 32ft 쌍동형 럭셔리 요트와 28ft, 33ft 단동형 요트, 레저용 제트보트, 파워보트, 낚시보트 등 50여 척을 개발 및 제작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 자회사인 ㈜대원마린텍과 함께 50부스 규모로 출전 예정이며, 전시회를 통해 광동FRP산업의 신규브랜드 VERIA를 선보일 예정이다.



## 바다로요트 BADARO YACHT

주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45 비즈센타 빌딩 6층 바다로요트  
연락처 | 02-3406-9007 홈페이지 | www.badaroyacht.com

바다로요트는 요트 및 보트의 신조/중고 매매, 차터(렌탈), 물류대행, 마리나 선석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요트 전문 브랜드다. 세계 유수의 요트 브랜드(AZIMUT, CAPELLI, ROBALO 社)와 딜러십 협약을 맺어 다양한 종류의 신조보트/요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여 개국에 분포한 지사망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중고매물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바다로요트는 국내 최초로 '요트&보트 차터(렌탈) 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존 회원제 개념을 탈피고, 언제든지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지역에서 배를 빌려주는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종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직접 배를 운항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평소 항해에 관심이 많지만, 쉽사리 구매 결정을 내리기 힘든 고객들이 짧게나마 자신만의 보트/요트를 소유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조종 면허증이 없다면, 스키퍼(전문 운전자)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곡항 마리나, 김포 아라마리나, 부산 수영만 마리나에서 차터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Hunter 326, Cruisers 370, Searay 290, Lagoon 420 등 원하는 배의 사양에 따라 단기~장기간 배를 빌려주고 있다. (시간제 운영 가능 2/4/8시간). 올해 5월 김



# It Booth

포 아라마리나 맞은편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요트/보트 전용 전시장을 개관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레저 산업의 발전과 요트/보트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요트/보트 전문 브랜드이다.

## 아트핸즈 ART HANDS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6로 21 인텔리움센텀 407호  
연락처 | 051-741-8342 홈페이지 | www.arthands.co.kr

"진정한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2003년 설립된 아트핸즈는 보트에서의 다양한 사용성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만족하는 최고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디자인 전문기업이다. 보트&요트 디자인, 전문낚시, 레저분야에서 문구, 사무용품, 정보통신기기, 디지털가전, 배선기구, 산업용품, 의료용품, 제품 UI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자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2014년 개발된 신모델 '신개념 투명 카약'은 상하 결합구조로 물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투명처리 모터부를 제외한 선체, 의자 등을 투명 처리함으로써 투명카약 자체의 매력을 유지한 제품이다. "답답한 도시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다." 라는 컨셉으로 디자인한 이 카약은 공학 BASE로 개발되었으며, 생산과 사용이 용이하며, 저렴한 가격까지 더해져 구매력을 높이고 있다.



## ㈜마이보트 MY BOAT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8번지 중산빌딩 202호  
연락처 | 1544-1570, 031-457-3301, 010-4082-3342  
홈페이지 | www.myboat.co.kr

㈜마이보트는 수상레저 혁신창조기업으로서 세계적인 수상레저시장을 석권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회사다. 창업한 지는 1년이 지났지만, 5년 전부터 수상레저보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연구개발해온 결과, 2013년 처음 참가한 경기국제보트쇼에서 국내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이집트 바이어와 3,000대 수출계약을 이루어낸 쾌거를 거두었다. 지금의 수상레저 보트와 배들은 전복의 위험이 있지만, 마이보트사에서 제조한 보트는 전복 위험이 없고, 100% 친환경 제품으로 직접 개발한 사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디자인을 빠른 시간 내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는 곧 가격경쟁력으로도 연결되며, 기존의 수작업 보트보다 높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올해 개최된 국내 보트전시에서는 세계 최초로 장애인용 휠체어 수상레저 보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2인승 수상레저보트 외에 4인용 패밀러형 테이블보트를 개발해 '가족과 함께 즐기는 레저'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발맞추고 있다.



## ㈜대원마린텍 DAEWON MARINE TECH.

주소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68-12  
연락처 | 051-831-7540 홈페이지 | lrpship.co.kr

㈜대원마린텍은 다기능 복합재료인 FRP(GRP)와 탄소섬유 CRP, 알루미늄 AL을 소재로 한 선박 건조 전문업체로서 과거 다년간의 풍부한 공사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 생산인력, 설계디자인, 생산관리자, 연구개발자 등 다년간 근무를 통한 기술자와 50톤 이상의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최적화된 생산시설 및 환경,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2년의 개발기간을 거쳐 탄생한 국내 최초 쌍동형 고속레저낚시 보트인 'Space-F' 모델은 국내외 동급제품 대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며 인기리에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 ㈜요트월드코리아 YACHT WORLD KOREA Corp.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50-16 에이앤디 빌딩 4층  
연락처 | 02-711-0257 홈페이지 | www.yachtpia.com

㈜요트월드코리아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기업으로서 선진 요트문화 보급을 통한 전 국민 요트레저라이프 실현을 목표로 신성장 동력사업인 요트레저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요트레저컨설팅 전문기업이다. 국내 레저보트시장이 성장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요트월드코리아에서는 요트레저 활성화를 위해 퀄리티 높은 선진국의 요트를 다양하게 도입하여 많은 공급을 통해 수준 높은 해양레저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품격 파워요트인 페어라인, 썬리프 파워 카타마란 요트 보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사계절 가족형 레저보트 마이너보트와 브라질 점유율 1위의 세퍼요트, 피브라보트를 수입, 공급하고 있다. 수입판매는 물론이며,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요트대여와 해양레포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형태의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구성해 요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누구나 쉽게 요트레저를 접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현실에 맞는 요트컨설팅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믿음을 최우선으로서 고객에게 다가가는 기업, 그리고 부산과 통영, 그리고 제주권을 시작으로 거점형 마리나 조성을 통해 전 국민이 쉽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 ㈜흥진티엔디 HUNGJIN TND

주소 |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 3로 115  
연락처 | 051-831-0657 홈페이지 | www.hj1nd.com

㈜흥진티엔디는 조선 치공구 및 기자재업을 바탕으로 SHI, HH, DSMI 등 굴지의 조선사와 함께 국내 조선업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던 중 해양시대라는 시세에 발맞추어 유럽형 모던클래식 우든보트(wooden boat)를 도입하여 해양레저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흥진티엔디의 모던클래식 우든보트는 국내레저보트시장의 주류를 차지하는 FRP보트와 달리 몰드가 없는 원오프 몰드(One-off mould) 공법을 채택하여 고객 맞춤형 커스텀 보트(Custom boat)를 실현하였다. 전 공정이 전문보트 빌더들에 의해 수작업으로 건조되는 선박으로



보트 건조의 과정에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으며, 배의 구석구석에서 보트 빌더들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최근, ㈜흥진티엔디는 기존 라인업된 선박 외에 30ft급 파워크루저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30ft 파워크루저는 청평지역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건조하는 선박으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선박이다. 26ft Wings of hope와 비슷한 선형을 가지지만 전장이 약 4ft 전폭이 약 2ft가 늘어나 여유로운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캐빈 후미의 벽을 없애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실내에는 화장실, 싱크, 레인지, 침실, 4인용 테이블 등이 구비되어 있고 외부에는 샤워와 다이빙보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 익스테리어에는 마호가니, 체리, 스프러스 등 최고급 원목을 사용하여 클래식보트 특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흥진이 개발한 국내 유일의 모던클래식 우든 보트는 지난 해 경기국제보트쇼에서의 혁신제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에스디엔(주) SDN Corp.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3110호  
연락처 | 02-446-6691 홈페이지 | www.sdn-i.com

에스디엔(주)는 Honda Motors Co. Ltd의 선외내연기관 한국 총판으로 1994년 설립 이래 4stroke 선외내연기관을 중심으로 우수한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검증된 기술력과 고객만족도를 높인 기술진을 겸비한 엔진 4stroke 전문 엔진회사로서 저연비와 저공해의 엔진 공급을 통해 국내의 어민 및 수상레저인이 보다 선진화된 환경에서 조업 및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05년부터는 어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수협판매 및 매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기술력으로 HONDA 선외기를 견인해오며 전국 260여 개의 파트너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에스디엔(주)은 다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민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엔진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된 품질보증제도 및 서비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 중이다. 이번 보트쇼에서는 HONDA 선외기 New 모델 추가 100HP/80HP/10HP, 낚시용품, 캠핑용품, 트레일러 및 보트관련 품목, 레저낚시보트, RIB보트, 고무보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유신HR U-SHIN HR

주소 |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20  
연락처 | 051-414-8700 홈페이지 | www.yushinhr.com

유신HR은 정적과 겸손, 고객을 향한 신뢰와 존중을 기업모토로 하는 Rodman사의 한국대리점이다. 2009년 고속엔진 전문회사로 시작하여 볼보엔진, 현대씨즈올엔진 대리점을 거쳐오며 레저보트의 엔진부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신속정확하게 공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세계적인 중속엔진 GE의 한국대리점으로 국내 퍼세이너 선





박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브랜드 PAMPANO를 개발하여 발전기셋트, 조수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중속, 고속엔진에 대한 전문업체인 유신HR은 엔진판매와 수리, 엔진부품 판매에 대해 높은 품질과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엔진 전문기술진과 자체 수리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선체관리 및 엔진, 부품 등에 대한 수리 점검 서비스 등 보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Rodman사의 SPIRIT31HT를 전시할 예정이다. Rodman Group은 1974년 요트산업이 발달한 스페인에서 설립되었고, 40여 년 동안 15,000척이 넘는 레저보트를 44개국 이상 수출한 스페인 최고의 보트 제조업체로 27#에서 74#에 이르는 다양한 range의 파워보트를 판매하고 있다. 전문 디자이너에 의해 설계된 Rodman 보트의 디자인은 10년이 지나도 모던한 스타일을 계속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인 보트 구성과 거품 없는 정직한 가격은 유신HR가 내보이는 자신감이기도 하다. Rodman에서 새롭게 개발한 모델인 SPIRIT31HT는 선미 부분의 레일이 달린 소파가 하이라이트로 차별화된 보트를 구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백산프로펠라 BS. PRO

주소 | 부산시 사상구 감전천로 227(감전동)  
연락처 | 051-311-4167 홈페이지 | www.bspp.co.kr

(주)백산프로펠라는 1984년 백산산업기계에 설립하여 아웃보드 모터용 알루미늄 프로펠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BS.PRO의 상표로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등 42개국에 수출하는 국내 유일의 선외기용 알루미늄 프로펠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다양한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로 신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백산프로펠라는 2014년 들어 4월 프로펠러와 허브키트를 추가하면서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특히, 4월 프로펠러의 경우 40~300마력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크기와 피치를 선택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종류의 신제품으로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 (주)펜타코리아 BADARO YACHT

주소 | 경남 진주시 정촌면 일반산업단지 28B 3L  
연락처 | 070-4377-2621 홈페이지 | www.pentakorea.co.kr

(주)펜타 코리아는 운송장비의 선두주자로서 엔진, 장비 및 차량 등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인 볼보 그룹 내 엔진사업부의 국내 총판매 대리점(Exclusive distributor)으로서 해상 및 육상용 엔진/발전기를 모든 산업분야에 공급하는 업체다. 볼보 엔진회사인 Volvo Penta는 1907년에 설립을 하여 현재까지 100년 이상을 차량 및 장비 제작회사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983년도에 대동중공업을 시작으로 두원 중공업, 볼보 그룹코리아 및 현재의 (주)펜타 코리아로 변경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의 확장 및 발전하고 있다. 특히 볼보 펜타 엔진 사업을 근간으로 소형 디젤발전기, 소형 가스 발전기, 볼보 엔진 이상의 고 마력 엔진, 중속 엔진, 추진기, 필요한 요구 조건을 최대한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신뢰, 존중, 환경을 최대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회사다. 전시부스에서서는 Volvo Penta만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월등한 성능과 엔진 출력 Rating1~5까지 다양한 범위의 제품 모델들을 둘러볼 수 있을 것이다.



#### CSM TECH(주) CSM TECH Corp.

주소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 8로  
연락처 | 051-714-5007 홈페이지 | www.csmotor.biz

부산에 소재한 CSM TECH(주)는 1990년 설립 이후 20여 년간 세계 유명 자동차 부품인 DC / BLDC 모터 제조생산을 해오고 있으며 자동화 Assembly Line을 보유하고 있다. DC Motor와 BLDC 모터 생산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생산하는 자동화 장비까지 설비 제작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시스템을 보유한 기술형 중소기업이다. 호수나 강가 등에서 낚시를 비롯한 레저 활동을 즐길 때 이용하는 고무보트나 카약에 장착하는 레저형 전기모터인 '플로버 선외기 모터'는 20여 년간의 세계 메이저 자동차 모터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모터 사업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체계화된 공장시스템을 기반으로 상품의 품질 안정성 및 제품 성능의 효율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 금호마린테크(주) KUMHO MARINE TECH Corp.

주소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316-14번지 2층  
연락처 | 051-293-8589 홈페이지 | www.kumhomarine.com

보트 & 요트에 최적화된 선박용 전자제품 및 보트전용 오디오를 취급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인 금호마린테크(주)는 선박용 전자장비 및 관련 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체다. 전국 200여 개 이상의 대리점을 확보하고 뛰어난 품질과 철저한 사후 서비스를 통해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으며 해양전자장비 업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호마린테크(주)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소비자 요구에 부합되는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소개하여 소형 레저용 보트에서 대형 어선까지 또한 각 수산 관련 연구소 및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의 어군탐지기보다 물표분해력이 월등히 개선된 CHIRP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넥스트 NEXT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19번지  
연락처 | 031-444-7119 홈페이지 | www.nextfloat.net

넥스트는 플로팅 시스템을 이용한 수변개발 산업의 선두주자다. 친환경 수변개발,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 등 여러 분야의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넥스트만의 강점은 제품생산부터 개발, 시공, 디자인, 사후관리까지 토털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마다 선진화된 제품을 국내시장에 소개하고 있는 넥스트는 올해 개최된 국내 보트쇼에서는 마루나, 보트, 요트에 관련된 부자재와 선진화된 해양 액세서리를 전시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넥스트플로트 제품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BEXCO

## BUSAN EXHIBITION & CONVENTION CENTRE

**KIMA INTERVIEW+**

### “부산보트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BEXCO 오성근 대표이사 사장

### BUSAN INTERNATIONAL BOATSHOW

#### 2014부산국제보트산업전

2014.10.2(목)~5(일) BEXCO, 수영만요트경기장

드디어 부산에서 국제보트산업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현재 준비상황은?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인 부산에서 보트쇼를 열지 않고 있다는데 대하여 의아해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벡스코에서는 오래 전부터 요트, 보트 관련 전시회를 계획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추진을 못하고 있던 차에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2012년에 설립되고, 부산 지역의 산업계, 학계 그리고 광역시와 지역 정치권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보트쇼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KOTRA, 그리고 BEXCO가 공동주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보트쇼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시 부스규모도 당초 계획 보다 많은 800개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참가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요트와 보트 완제품 전시에 특화하여  
국내 제조업체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산업전시회의 특징을  
살려 나갈 계획!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한 바 있어 어쩌면 후발주자인 셈인데, 부산이 가지는 지역적, 산업적 강점은?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이미 7회를 개최하여 자리를 잡고 있는 ‘경기국제보트쇼’ 등 국내 타 보트 전시회와 비교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전시회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부산은 국내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75%가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고, 해양레저 체험이 용이한 해양환경과 마리나, 호텔 등 충분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가 어우러져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산업적 강점을 잘 살려서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빠른 기간 내에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부산항대교가 개통되어 부산 신항과 녹산·신호산업단지, 북항 등 주요 산업현장을 잇는 총길이 52km의 해안순환도로도 완공되었기에 더욱 수월해진 도심 간 산업연계를 통한 파급효과도 기대됩니다. 부산에서 열릴 보트쇼를 ‘보트산업전’이라 명명한 데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존재하고 이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바이어가 기꺼이 찾아올 만한 유인이 있는 도시 부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트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벅스코의 전시기획력도 중요합니다. 기획의 차별성은?

먼저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요트와 보트 완제품 전시에 특화하여 국내 제조업체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산업전시회의 특

징을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전시회를 통하여 완제품의 판로개척 뿐 아니라 OEM 진출 기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사들의 기술력 향상과 제품 고급화에도 기여하는 전시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관련 기자재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도 판로확대와 회사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운영 면에서도 다른 전시회와는 차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어 육상과 해상 전시를 동시에 진행하고 특히 해상체험이 가능한 보트쇼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벅스코 전시장과 해상 전시회가 열릴 마리가나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편하게 육상과 해상 전시회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중에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축제’를 주제로 열리게 되는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 2014)의 국제드래곤보트대회와 달빛수영대회, 어린이 요트 대회 등과 연계하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부산국제영화제’(BIFF)와도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시회의 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키마위크(KIMA WEEK)는 해양관련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의 마이스(MICE)를 대표하는 벅스코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벅스코는 ‘부산국제보트산업전’ 개최를 통하여 요트 및 보트 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구매가 성사되는 비즈니스의 장은 물론이고 다양한 주제의 컨벤션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업계와 학계, 대중 사이에 요트와 보트를 통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벅스코는 해양 전문 전시컨벤션 개최의 최적지로서 마린위크, 부산국제수산물무역엑스포,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등 각종 해양 전시회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조선과 해양, 플랜트, 수산 등 해양 관련 분야를 연결시켜 해양도시를 대표하는 전시컨벤션 분야에서도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이 개최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의 대표 전시컨벤션센터로서 수산 및 해양 관련 전시컨벤션 행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맞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부산보트쇼가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동력, 혹은 선결과제라면?

먼저 해양레저, 특히 요트와 보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큰 부담 없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겁니다. 또한 앞으로도 해양산업이 부산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동력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 제품개발, 요트 및 보트 관련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해양레저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 상위 3위를 차지하는 IT, 자동차, 조선 산업이 융복합된 산

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그 중요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다행히 최근 해양레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고, 지난 6년간 레저보트 등록 대수는 연평균 15%대로 성장,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2013년 기준 1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장이 가시화 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해양레저가 대중화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면 해양레저 수요증가 및 산업 활성화로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KIMA WEEK 2014’에 거는 기대와 함께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으로의 초청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일 뿐 아니라 글로벌 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 거는 업계와 시민들의 기대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이 보트, 요트 등 해양레저용품의 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고, 해양레저 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참가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칭찬받는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KIMA+**



#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해양레저를 꿈꿨습니다

T·O R&D Labs. [티오알앤디랩스] | 김태호 대표

작년 10월 2일, 2013년 대한민국국제해양레저위크의 개막식이 열리던 날, 국제수퍼요트컨퍼런스와 함께 마련한 그랜드오프닝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예외 없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무대 앞에 걸음을 멈추어 섰다. 무대 앞에는 '어느 햇살 좋은 날 반짝이는 물결 위에서 세일링을 즐기는 바다풍경'이 옮겨져 있는 듯 했다. 미니어처이긴 하지만, 돛을 편 배들이 떠다니는 바다는 사람들의 표정에 알 수 있는 시원함과 여유로움을 떠올리게 했다. 디자인 베이스의 기획을 추구하는 KIMA WEEK조직위원회 측이 의지와 더불어 기획 조정단의 김태호 위원 (T·O R&D Labs. 대표)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었다. 그가 스케치부터 설계, 디자인, 시공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며 빠듯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에 정성을 쏟아 부은 것은 해양레저 분야의 디자이너로서 가진 남다른 열정 때문이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벌써 3년째 해양레저장비 디자인에 올인하고 있다는 그의 일터, 'T·O R&D Labs.'를 찾았다.



KIMA WEEK 2013  
그랜드오프닝 무대앞에선 김태호 대표

Q. 작년 KIMA WEEK 그랜드오프닝 이후, 무대디자인이 이슈였습니다. 무대의 컨셉은?

A. 개인적으로 그랜드오프닝의 무대에 대한 제 생각은 '파티의 장'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진 소통의 공간이며, 즐거움의 공간이죠. 목적이 비즈니스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가 곧 소통이며, 비즈니스만이 가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번 무대 역시 즐거운 소통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만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KIMA WEEK 그랜드오프닝 무대의 디자인 컨셉은 '리플렉션(Reflection)'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단순하고 순수하게 바다와 함께 하는 모습이죠. 특히 바다가 가진 물의 성질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그대로 투영해냅니다. 해양레저를 통한 해양강국을 실현하겠다는 KIMA WEEK의 원년인 만큼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해양'을 통해 비추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무대를 디자인한 사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소개할까요?

A. Academy of Art university(샌프란시스코)에서 제품디자인학과 대학원 졸업 후 실리콘밸리 및 스포츠 회사 등에서 실무경력을 쌓았습니다. 8년 전 한국으로 귀국 후 국내 최초로 스포츠 장비 디자인특화의 전문회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해양디자인분야의 자체 연구는 4년 전부터 착수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스포츠, 레저장비 및 해양레저 서비스디자인 특화를 중심으로 양산설계, 파일럿 생산 플랜딩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Q. 해양레저장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면?

A. 4년 전, 부산디자인센터를 통해 해양디자인 관련, 국외 현지 현황 및 디자인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간 직접 서부해안가 및 해양레저 인프라를 직접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해양레저 선진국이





#### ● 티오알앤디랩스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로 스포츠, 레저 및 해양장비 디자인분야의 디자인기술특화를 중심으로 디자인, 양산설계, 파일럿 생산 플래닝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해양장비 분야의 국내 및 아시아 레저시장에 적합한 '숏-보드(Short-Board)' 류를 중심으로 등록 상표 [블랙-티]의 해양레저제품 개발 및 양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레저분야의 다양한 레저장비발굴과 해양레저 저변인식확대, 디자인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다.

#### ● 네오프렌 MARINE-B(마린-비)

인체무해한 친환경 소재의 네오프렌(소프트-셀) 마린 비는 튜브대용 부력패널 및 물놀이 장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바디보드 형태의 해양레저장비. 6종 컬러 스킨이 패셔너블하다.



보다 대중적인 레저장비에 높은 관심과 사용실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양레저 장비디자인분야에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특화된 해양디자인분야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Q. T.O R&D Labs.의 대표적인 제품들을 소개해주세요.

A. 현재 주력하는 제품은 숏-보드(Short-board)류로 배우기 쉽고 이동이 편리한 대중성 있는 바디보드(Body-board)입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국내 튜브만큼 대중성 있는 장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국내에 유입이 가능하거나 국산화에 적합한 장비 선정에 오랜시간을 고민하고 국내 해안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점차 지구 온난화로 인해 국내 해안의 해수면 높이는 물론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지나면 튜브로만 해안가에 밀려드는 파도를 즐기기에 한계가 올 텐데, 그에 적절한 장비가 바디보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국내 해수욕장에 오직 튜브만으로 150년의 해수욕장 놀이장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Q. 제품의 강점이라면?

A.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용이 쉽고 안전한 형태의 장비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핑보드는 롱보드(Long-board)로 전문가 또는 마니아들을 위한 해양장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수입품에 전문장비들이 주류를 이루어 가격대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운반이나 보관상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저희가 2013년에 개발한 국내 최초 바디보드 'MARINE-B(마린-비)'는 튜브 대용으로 개발한 부력패널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장비입니다. 표면처리도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네오프렌(소프트-셀)로 사용해 위생과 세탁에 용이하도록 만들었고요. 해안가는 물론 아웃도어 환경의 리조트, 인공풀장 등에서도 안

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바디보드 전문장비보다 4cm 넓은 좌우 면적으로 균형 잡기가 쉽고, 전체길이도 1015cm로 작은 승용차 트렁크에도 들어가는 사이즈라 이동성도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국산화로 AS 등 소비자 측면의 추가적 관리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 Q. 티오알앤디랩스와 더불어 디자이너 김태호가 제품에 담고 싶은 가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A. 제가 해양디자인 자료조사차,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던 기간이 그 도시 기상관측사상 최초로 우박이 온 날이었답니다. 심각한 악천후였죠. 그런 악천후의 해변에서 아빠와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보드를 타러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보였고,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담고 싶은 가치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용자들의 환경과 정서에 지극히 자연스러우면서,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놀이도구로서의 해양레저장비를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산업활성화 측면에서도 저변확대의 기본은 가족인 만큼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튜브를 사용하듯 편안하게 접할 수 있지만, 프로 서퍼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기를 기대합니다.

#### Q. 끝으로, KIMA WEEK에 가는 기대가 있다면?

A. 국내 해양행사 및 조직 대부분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시행된다는 점을 볼 때, KIMA WEEK는 '해양'을 중심으로 모이고,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는 순수하고 능동적인 행사라는 점이 차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끌렸습니다.

KIMA WEEK가 지향하는 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문화축제'라는 슬로건처럼 부산이라는 도시가 '해양레저'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에게 '별장'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과 실리 두 가지를 모두 만족케 하는 공간, 매년 찾아가고 싶은 별장 같은 KIMA WEEK를 기대합니다. **KIMA+**



## 우남마린



| www.riboat.net |   |
|----------------|---|
| 대표             | 김한준   |
| 설립             | 1982년   |
| 부산국제보트산업전      | 10월 2일(목) ~ 5일(일)<br>BEXCO 제1전시장 및 수영만요트경기장                           |
| 주요제품           | 고속단정(RIB), 특수선박 개발 제조<br>기타 해양장비, 소형 고속선박 설계, 건조                      |
| Number.        | Tel. 055-331-8959 Fax. 055-331-9420                                   |
| Add.           |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 동북로 473번길 14-23<br>공장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 동북로 473번길 126-82 |

우남마린은 요트, 보트 전문 제조사로 군용 고속단정(RIB)을 비롯해 경기용, 일반 레저용 요트 등을 디자인부터 설계, 제조까지 엔진을 제외한 전 공정을 일괄 생산하고 있다.

우남마린은 1982년 김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창업한 뒤 1997년 현재 위치로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 2001년부터 해군 고속정을 자체 개발해 납품하기 시작했다. 2004년 ISO 14001 인증, 2006년 K마크 인증을 받았다. 2008년에는 부산컵 세계 여자매치레이스 경기장을 만들었고, 이듬해 소말리아 파병부대에 고속정을 공급하기도 했다. 우남마린은 올해 군대와 요트학교에 공급하는 요트 5대를 생산했다. 6천만~2억 원 사이의 23피트급 4인용 4대, 그리고 5~7명이 타는 30피트급 1대를 만들었다.

부품 및 자재 국산화율이 90%에 이르는 기업으로 제품 중 'K-30'은 세계여자 매치레이스 공식경기정으로 지정돼 성능을 공인받은 바 있다. 또한, 마린 인퓨전(진공수지주입법)과 다축섬유를 사용해 일반 FRP보다 2배 이상의 강도를 가진 고성능 경량요트로 유체공학을 적용한 최적의 벌크킬을 채용했다. 30ft의 선체에서도 충분한 거주구역과 합리적인 공간설계에 FRP 일체형 내장몰드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김한준 사장은 "우리회사 제품은 배 짓는 사람이 가진 모든 아이디어와 기술을 집약해 만든다. 또한, 구매자의 용도와 요구에 맞게 커스텀마이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주문 제작이 어렵고 힘들지만 고객이 만족할 때 가장 보람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33년간 선박제조의 외길을 걸어온 우남마린(대표 김한준)은 매출 100억 원 대의 조선업체로, 다른 배와 함께 요트를 만들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요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20% 정도다.



## (주)오션 스페이스



| www.oceanspace.com |   |
|--------------------|---|
| 대표                 | 정현  |
| 설립                 | 2002년   |
| 사업분야               | 해양 설비 개발, 제작, 설치 해양 및 항만 설계   |
| 주요제품               | 부잔교, 부방파제, 해상 부유식 마리나   |
| Number.            | 본사   02-6352-1315 공장   051-802-7615   |
| Add.               | 본사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 1501호(도화동)<br>공장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3001호 |

회사명에서부터 해양공간을 느끼게 하는 (주)오션스페이스는 해양공간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디자이너'와 같은 기업이다.

첨단 해상 부유식 설비기술 개발과 보급을 목표로 2002년에 설립된 (주)오션스페이스의 사업분야는 부유식 해상 마리나 및 레저 분야를 포함한 각종 해상 부유식 구조물, 조류 및 파력 발전, 온도차 발전, 해상풍력, 수상태양광과 같은 각종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심층수 및 외해 수산양식 설비 등의 제작, 설치, 운영이다.

또한, 항만 관련 특화설계와 해상 교량 관련 시뮬레이션, FPSO, Semi-submersible TLP, Spar 등 각종 해양 구조물 설계와 육상 및 해양 플랜트 설계 등 관련 엔지니어링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3월 최대 진도 9.0을 기록한 동일본 해저지진이 발생했던 당시, 10m에 달하는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해안을 휩쓸었을 때, 시오가마항에 계류되어 있던 부잔교 만은 다른 해안시설과 달리 멀쩡하게 남아있었던 것이 화제가 되었다. 그 비결이 바로 길이 50m의 합체 4개의 부유식 함체였다.

부유식 구조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마리나와 같은 해양레저 시설이다. 부유식 구조물이 마리나에 많이 적용되는 이유는 경제성을 높여주고 고가의 레저 보트를 보호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지 확보가 어렵고 매립도 쉽지 않은 해안에서는 부유식 시설이 매력적이다.

정현 대표는 자사를 소개하면서 "오션 스페이스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함께 영국, 프랑스 등 해양선진국 협력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해양 및 항만 분야 기술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독자적인 설계·시공 능력과 창의적인 해양 관련 기술을 보유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21세기 신개념 해상 부유식 설비 기술 증진에 앞장서서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등 창조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기업경영의 의지를 밝혔다.

(주)오션스페이스는 국내 유수의 기관뿐 아니라 영국, 홍콩, 싱가포르, 프랑스 등 해외 협력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해양 및 항만 분야 기술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독자적인 설계·시공 능력과 창의적인 해양 관련 기술을 보유해 나가고 있다.



## 카약왕 PASKO



| www.facebook.com/kayakkorea    www.facebook.com/paskorea |  |
|--|--|
| 대표   | 허성준  |
| 설립   | 2011년  |
| 주요제품   | 유명카약브랜드 및 용품 수입원,<br>RAILBLAZA KOREA(레일블레이자 코리아) |
| Number.  | Tel. 070-8758-1613                               |
| Add.   |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해맞이로 129-1                           |

카약왕 PASKO는 세계 유수의 카약 제조사 및 해양레저용품 회사의 한국 내 마스터 디스트리뷰터(master distributor)로서 대한민국의 일반 소비자 및 기업, 체험시설, 교육기관 등에 적합한 품질 좋은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의 유명 카약 브랜드 및 해양레저관련 용품의 수입-수출은 물론, 온-오프라인 유통, 대리점 사업, 외국인 회사 및 외국인 대상 교육과 공급이 주요업무다.

카약왕 PASKO가 취급하는 글로벌 브랜드로는 대한민국에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뉴질랜드 바이킹 카약,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어링 카약인 영국 벨리 씨카약, 유럽 최대 카약 설비제조그룹인 타헤아웃도어를 비롯하여 미국 누카누, 뉴질랜드 바라쿠다 카약, 영국 노스쇼어 씨카약 그리고 세계적인 패들제조사인 워너 패들사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브랜드별 판매율이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4년 현재, 카약왕 PASKO는 서울-경기-전남-경북-부산-제주지역에 대리점 및 협력점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카약, 보트, 요트 액세서리 용품회사인 RAILBLAZA KOREA도 담당하고 있다.

허성준 대표는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간편히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대한민국에서 ‘카약 = 카약왕-PASKO’로 포지셔닝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전국 대리점 망을 모두 갖추 예정”이라고 밝히며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약왕 PASKO의 강점은 해외 공급사들과 오랫동안 긴밀한 신뢰관계를 유지해온 노하우와 수요층이 다양한 카약 및 소형보트를 주로한 사업영역의 특화 전문화이다. 최근 해양레저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해양레저 종목이 카약인 만큼 카약왕 PASKO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해양레저 발전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



## (주)블루마린요트



| www.blue-marine.co.kr |  |
|-----------------------|--|
| 대표                    | 이성용  |
| 설립                    | 2007년  |
| 주요제품                  | 요트, 보트, 제트스키 수입판매, 요트 관리, A/S, 운항서비스, 해상장비 취급, 마리나 건설팅 |
| Number.               | Tel. 051-731-0805 Fax. 051-731-0804                    |
| Add.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393 요트경기장 내                              |

(주)블루마린요트는 부산수영만요트경기장에 본사를 둔 요트 수입전문 업체로서 파워요트 관리, A/S업무를 시작으로 꾸준히 요트관련 서비스사업을 이어왔다.

요트, 보트, 중고보트, 제트스키 등의 수입, 판매는 물론, 요트관리와 A/S, 마리나건설팅과 함께 시공, 개발, 운영 등의 마리나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나라에서 요트를 수입, 공급하고 있는 (주)블루마린요트는 국내 수입되고 있는 20여 개 요트브랜드의 유지관리(maintanance)를 맡고 있는데, 운항, 관리, A/S 부문으로 나뉘어 체계적인 요트관리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50대 이상의 대·소형 요트의 운항, 관리, A/S실적 및 고객관리 부분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요트관리전문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블루마린의 대표적인 취급 브랜드로는 작년 경기보트쇼 전시요트 중 최대규모를 자랑한 제임스본드 시리즈 등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미국의 명품 스포츠보트인 Formula, 고객의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중대형급 럭셔리 요트브랜드인 Dynacraft, 고품격 낚시보트로 최고 수준을 인정받는 미국의 Donzi, 전세계 최고급 명품 파워보트인 스페인의 Astondoa, 캐나다 명품 스포츠 보트인 Doral, 유럽명품 요트 브랜드로 알려진 이탈리아 Ferretti 그룹의 Pershing, 전 세계적으로 그 성능과 편의성을 인정받고 있는 Catamaran, PWC의 최강자인 Sea-doo 제트스키 등을 수입 공급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발맞추어 고객만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또한 West Marine과의 한국총판 계약을 통해 다양한 마린용품을 공급함으로써 수상레저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 5월부터는 부산 최초의 퍼블릭마리나시설인 The Bay 101과 손을 잡고 마리나 내 ‘클럽 101’의 운영을 맡고 있는데 7월까지 국내 최초의 76피트짜리 대형 카타마란 요트 3대(128인승)와 360도 회전할 수 있는 초고속 제트보트 3대, 제트스키 30대, 바나나보트 등을 도입해 체험형 관광사업을 펼친다. 11월에는 반(半)잠수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 KIMA WEEK 2014 조직위원회 출범

2월 11일, 부산 웨스턴조선호텔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를 위한 KIMA WEEK 2014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2월 11일 오전 11시,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주최하고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KIMA WEEK 2014(조직위원장 문철호)는 출범식을 통해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박용수 이사(※)골든블루 회장을 올해의 집행위원장으로 위촉하고 6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올해 행사기간은 9월 29일~10월 5일로, 9월 30일 그랜드오프닝과 함께 KIMA WEEK국제컨퍼런스가 시작을 알리게 된다. 그리고 올해 가장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인 부산국제보트산업전과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대회,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부산국제영화제 연계 행사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올해도 2회째를 맞는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공유하고, 올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 부산국제보트산업전 본격 준비 돌입

2월 27일, 부산MBC 대회의실에서 보트산업전 운영위원회 개최

KIMA WEEK 2014 조직위원회는 2월 27일, 부산MBC 대회의실에서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11일 KIMA WEEK 2014 조직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촉한 30여 명의 전국 해양레저산업 관련기관 소속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행사기획과 준비를 논의했다. 부산에서 처음 개최하는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KIMA WEEK 2014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 및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육상·해상 전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주관사인 BEXCO 전시담당자는 행사 기간 동안 120개사(800개 부스)가 참가하는 대형요트와 일반 보트, 요트 엔진, 마린사 시설, 해양레저장비 전시 및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 워크숍 참여 KIMA WEEK 사례 발표

3월 29~30일,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주관 '해양관광 활성화 포럼'

KIMA WEEK 2014 여한웅 기획조정단장(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9일부터 이틀간 부산 중앙동 팬스타크루즈에서 열린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 워크숍'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부산지역 관광·마이스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 워크숍'은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이사장 오성근)이 주관한 행사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산을 이끌어 갈 미래전략산업, 관광·마이스 산업의 재조명'을 주제로 부산의 해양관광산업 실태점검과 산업발전 저해요인 분석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여한웅 기획조정단장은 KIMA WEEK(대한민국국제해양레저위크)를 소개하면서 KIMA WEEK와 부산국제영화제의 연계를 통한 해양관광과 축제의 융·복합 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부산관광컨벤션포럼과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4월 22일 '해양관광 정책포럼'을 공동주관으로 개최해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과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 아트쇼부산 & 부산국제모터쇼에 KIMA WEEK 홍보부스 참여



아트쇼



부산국제모터쇼



## 6월 16일, 첫 운영위원회의 개최 – 해양관광위원회 신설 등 안건 논의 7월 16일, '해양관광위원 하례회' 열어 해양관광 활성화 모색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지난 6월 16일, 문철호 대표이사장 외 17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IMA WEEK 2014와 주요 콘텐츠인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추진에 관한 경과보고와 함께 신입 운영위원 위촉, 분과위원회 확대, 행사홍보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해양레저산업과 함께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해양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호텔과 유통업계, 복합마리나, 여행사, 항공사 등 관련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더 큰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공감했다. 또한, 세월호사건의 여파로 해양산업 전반이 위축된 시점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했고, 행사에 대한 해외인지도 향상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첫 운영위원회에서 '해양관광위원회' 신설을 결의한지 한 달 만인 7월 16일,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해양관광위원 하례회'를 더베이101 마린홀에서 가졌다. 이날 해양관광 분야의 13개 기관 및 기업이 해양관광위원으로 위촉되어 앞으로의 활발한 네트워킹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관련기사 p21)



##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연계, 해양레포츠박람회 진행

7월 11일~20일, 롯데백화점 광복점 1층 광장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부산지역 백화점들이 이색 피서이벤트로 손님 끌기에 한창인 가운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는 해변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저용품들이 등장했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롯데백화점과 연계해 기획한 '해양레포츠박람회'가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렸다. 롯데백화점 광복점 1층 정문광장에 펼쳐진 '해양레포츠박람회'에는 크루저 요트, 제트스키, 카약, 카누, 미니보트, 수상 바이크 등 다양한 해양 레저용품을 전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백화점을 찾은 고객은 물론 행인들의 관심까지 끌어들였다. 전시현장에서는 KIMA WEEK 2014와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의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 KIMA WEEK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바다야 놀자' 시즌2, 7월 19일 첫방송

KIMA WEEK는 올해도 방송 콘텐츠를 통해 해양레저와 대중의 만남을 주선한다.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체험하며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정보를 알린다는 취지로 기획된 '바다야 놀자'(연출 윤성준)는 부산MBC가 제작하는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대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선보였던 '바다야 놀자'는 올해 시즌2를 이어가며 한층 다이내믹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그맨 유민상, 양상국, 배우 김혁, 방송인 채드 커튼 등 4명의 MC가 매주 해양레포츠 종목을 배운 뒤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안겨줄 예정이다. '바다야 놀자'는 7월 19일 오전 9시 4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12주간 매주 토요일에 방영된다. KIMA WEEK 2014 축제기간 중에는 벡스코에서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쇼 특집편을 촬영, 10월 4일에 방영할 예정이다.



##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성공기원 해변콘서트 '바다야 놀자' 개최 8월 3일 오후 5시, 광안리해수욕장 무대

같은 음악이라도 해변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그 낭만이 다르다. 8월 3일 광안리 해변무대에서는 KIMA WEEK 2014 성공을 기원하는 콘서트가 열렸다. 해변콘서트 '바다야 놀자'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 콘서트는 동주대학교 실용음악과와 KIMA WEEK 사무국이 함께 마련한 콘서트로 부산 시민과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박선영 동주대 실용음악과 교수는 "학생들이 해마다 마련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퍼포먼스를 가미하여 관객들에게 보는 즐거움도 더해줄 것이다. 특별히 KIMA WEEK와 함께 하게 되어 더 의미가 깊다."며 소감을 전했다. 대중음악을 통한 해양레저의 저변확대도 기대해보게 하는 무대였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 Korea Marine Leisure Network

## “ 해양레저 대중화와 해양레저산업의 공생발전 ”

### PLANNING

해양레포츠를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 INFRA STRUCTURE

해양레포츠의 마리나시설  
건립 운영에 기여한다.

### INDUSTRY

해양레포츠 장비(크루즈, 요트 등)관련 기업  
해양레저 서비스 기업의 창업을 선도한다.

### COAST TOUR

해양레저를 활용한 프로모션과 마케팅  
전략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 EDUCATION

해양레포츠 등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함께 한다.

## 해양레저의 First Class 부산크루즈

### 이제껏 느껴보지못한 부산의 새로운 야경

부산크루즈는 부산 연안의 해안절경과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킨 해양레저 상품입니다.  
고급요트와 크루즈 관광으로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관광산업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선상에서 즐기는 음악과 여유, 세일요트만의 바람을 가르며 나아가는 승선감은  
아름다운 야경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 당신이 여지껏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 부산크루즈

#### Real Sailing Yacht

부산크루즈가 운영하는 72피트 규모의 대형 카타마란 요트는 자연 그대로의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세일요트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의 즐거움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슈퍼요트 (100인승) 3척

- 설계 : Mer-et Design SARL (Mr. Philippe Subrero)
- 재원 : 72ft 카타마란 유람선
- 승선인원 : 100명
- 현재 본사의 자회사 (주)삼주에스테에서 건조 중

#### 유람선 운항 코스

유람선 운항 코스는 용호만 유람선 부두를 모항으로 동측항로 코스와 남측 항로 코스 등 2코스를  
Loof Tour로 정기 운항하며, 향후 기항지형 유람선 운항 예정입니다.



# 시간을 뛰어넘는 다이아몬드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탄생

시간을 초월한 듯,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의 가치처럼  
최고의 맛과 품격으로 탄생한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36.5도의 부드러운 목넘김과 오랜 전통을 간직한 블렌딩까지—  
빛나는 내일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GOLDEN BLUE  
**The Diamond**  
슈퍼프리미엄 위스키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안전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Dynamic  
BUSAN

# DYNAMIC BUSAN.

도시를 희망으로 수놓는 다채로움 —  
DYNAMIC SPECTRUM

부산의 미래는  
시민의 자부심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